

매립지 대책 ‘잠잠’ 지역주민 ‘술렁’

수도권매립지 주변·송도 등…연장·대체부지 불가 ‘목청’
저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시 “시민들 예민한 상황”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존폐를 결정할 대체매립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민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수도권매립지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뒤늦은 결정이 오히려 주민 간 갈등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10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수도권매립지 관련 민원은 총 125건으로, 이 중 약 70%에 달하는 88건이 매립지 연장 반대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월에는

첫째 주에 96건, 마지막 주 68건이 접수되면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민 민원은 시가 최근 발표하기로 했던 대체매립지 선정 결과를 미루는 등 시의 행보가 매립지 기간 ‘종료’보다는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판단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쓰레기매립지 주변은 현재 인구 5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거대한 신도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며 “주민들은 2016

년도 매립지 사용계약 종료만을 믿고 모든 고통을 참으며 살아왔기에 종료기간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도 연장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시의 대체매립지로 논의되는 각 지역 주민들 역시 선정 반대와 해당 지역 후보지 제외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있다.

송도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2016년 쓰레기매립지 종료와 더불어 대체매립지를 결정한다고 들었는데, 송도국제도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 송도는 UN 산하 10여 개 기구가 입주해 있고 친환경 도시를 표방해 GCF를 유치했는데 쓰레기매립지가 맡아나 되는 소리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체매립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영종

도 주민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영종도의 한 주민은 “비싼 통행료를 내 가면서 공기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힘들게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영종 증산동을 매립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사실화되면 우리 영종 주민들은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민원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매립지 기한 연장 보도를 비롯해 송도 LNG기지 증설 계획, 영흥도 유연탄화력발전소 증설 논란 등 위험·기피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예민한 상황”이라며 “수도권매립지 대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릴레이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월미은하레일 활용안 결정 초읽기

유 시장 현장 찾아 시승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한 월미은하레일의 향후 활용 방안이 빠르면 올해 안에 결론날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월미은하레일 교각과 월미공원역 내 관제실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유 시장이 월미은하레일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날 관제실에서 유 시장은 인천교통공사 관계자에게서 과거 시운전 중 파손된 모노레일 부품을 직접 확인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용역을 진행한 안전성 검증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어 직접 차량 하부와 교각 위치, 기둥기 등을 살펴본 뒤 차량 시승을 진행했다.

현장 확인 후 유 시장은 “단지 느낌만으

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활용 방안은 모든 견해를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공사 마무리 후 4년이 넘도록 월미은하레일 운행이 시작되지 못해 중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만큼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든 활용 방안을 확정짓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교통공사는 ㈜가람스페이스 측과 기존 시설물을 일부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방식의 레일바이크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교통공사는 당초 제안한 자동차 수송을 겸한 레일바이크 대신 1량당 8명씩, 최대 24명이 탑승할 수 있는 일종의 ‘자동차(전동)형 미니 모노레일’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존 모노레일 운행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면에 계속>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유정복號 조직개편 불발 사회적경제과 해체 좌절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후 단행한 첫 조직 개편 시도가 좌절됐다.

일부 부서의 폐지와 통합, 이전 등을 내용으로 한 취임 후 첫 조직 개편 시도가 조직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자신의 공약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편안은 사실상 포기한 모양새다. 입법예고까지 한 조직개편안이 좌절되면서 유정복 시장의 향후 임기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취합한 최종 조직개편안을 30일 열리는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심의한 뒤 다음 달 11일 열리는 시의회 제220회 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유 시장의 공약사항을 추진할 부서의 위상이 격상됐다는 점에 눈에 띈다. 인천발 KTX 및 GTX를 연계한 경인전철 지하화 등 광역교통과 관련한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교통기획과를 ‘광역교통정책관’으로 격상, 교통 관련 총괄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경제부시장과 행정부시장 간 업무 조정도 새로 이뤄졌다. 그동안 검토된 조직개편안에서는 도시재생국이 경제부시장 소관이었지만 경제부시장 업무가 부채와 국비 확보, 투자유치 등인 점을 감안해 행정부시장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일부 부서의 폐지 및 통합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사회적경제과의 사회적기업팀과 마을기업팀 등을 일자리정책과 등에 재배치하

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원위치시키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과 해체는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 논란을 빚은 바 있으며, 시민단체가 해체를 적극 반대했다.

건설교통국과 향만공향해당국을 건설향만공향국으로 묶으려고 했지만 인천의 대표 산업인 해양·항만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이 안 역시 취소되고 기존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 교육지원과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이관할 것을 검토했지만 문화관광 분야에 교육이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일차 기준처럼 기획조정실에 두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는 보건복지국으로, 보건복지국 다문화정책과는 여성가족국으로 교환하는 방안이 확정돼 안팎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노인 관련 업무는 보편적 복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따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 개편안 역시 다른 부서처럼 원래대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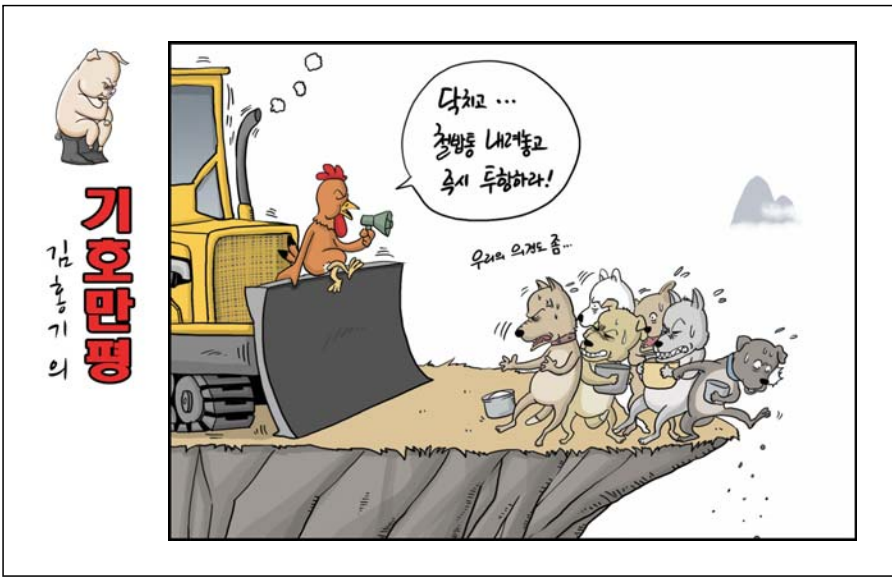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부서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서 승인되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 발표에 따라 당초 시가 한시기구로 설치한 재정기획관과 도시재생국 중 도시재생국이 내년 초 정식기구로 조정된다.

정희진 기자 jhj@kihoilbo.co.kr



유정복 인천시장이 2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월미공원 인근 월미은하레일의 한 교각에서 인천교통공사 관계자의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경기도의회는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1,260만 도민의 행복과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위주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gc.go.kr

우여곡절 끝 설립 항공산업기술센터, 1년도 못 버티고 추락하나

市-인천TP,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해 4월 전격 개소
성과 없어 예산삭감 불가피... 관계자 “기반 다지던 중”

인천시의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지원기관인 ‘항공산업 기술혁신센터’의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개소한 센터는 내세를 만한 성과가 없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9일 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센터를 지난 4월 설립했다. 센터는 현재 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인천테크노

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 신규 사업임에도 무리하게 예산 5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아시아엔개입 성공 개최를 위해 모은 예산을 집중기로 한 시의 방침에 따라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설립된 센터는 설립 1년 만인 내년 4월께 문을 내려야 할 처지가 됐다.
센터 설립 이후 보여준 성과가 거

의 없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올해 계획했던 센터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항공정비산업 기업 수요 조사,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공모 제안 등 어느 하나도 명쾌하게 해결한 사업이 없는 상태다. 특히 지역 항공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할 전문가 구성 협의체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항공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협의체 구성도 마친가지다.
이들 협의체는 지역 중소기업에 항공 정비와 부품 생산 등의 지원 기술을 이전하고, 향후 센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기구로 센터 설립과 동시에 구성을 마쳐야 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예정된 국제세미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겨우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관한 회의가 고작이다.
국제세미나의 경우 현재 국토교통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여론을 조성한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TP 관계자는 “항공정비부품산업 기업 수요 조사가 다음 주에 나오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첫째에는 센터 기반 시설을 다지는 기간으로 해외 기업들과 협력이 가능한 지역 기업들에 대한 수요 조사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재능대 호텔외식조리과와 한식명품조리과 학생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2회 한식의 날 대축제에 참가, 작품전을 열고 관계자들에게 작품요리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음식이 곧 한류의 중심... 명품한식에 눈 번쩍

인천재능대 조리과 학생들
한식의 날 대축제 참가 눈길

인천재능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와 한식명품조리과 학생들이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2회 한식의 날 대축제’에 참가,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작품전을 열고 한식 사랑과 가치를 세계에 알렸다.
인천재능대 학생들은 작품전을 통해 ‘한식! 한문화의 중심에 서다’라는 슬로건에 맞춰 한식의 맛과 멋을 수백 가지 음식으로 표현해 행사에 참석한 내·외국인 관람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특히 한반도 지형을 이용해 만든 초대형 비빔밥 용기에 소통·화합·나눔의 의미를 담아 4천347인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팔도식자재 비빔밥 퍼포먼스를 펼치며 축제를 한마음 한뜻으로 모았다.
비빔밥이 완성된 후에는 축제에 참석한 모든 관람객들이 비빔밥을 맛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학생들의 조리사 선서, 인천재능대와 사단법인 대한민국의 한식협회(협회장 강석홍)의 교육과정 공동개발,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산업체 인사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협약 체결 등의 행사도 진행했다.
박성훈 재능그룹 회장은 “제2회 한식의 날 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우리 역사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한식 세계화의 힘찬 출발을 인천재능대가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기우 총장 역시 “한식의 날 대축제가 올해로 끝나지 않고, 한식 문화를 발전시켜 세계에서 으뜸가는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cyt@kihoilbo.co.kr



배출 이산화탄소 모아서 시멘트 대체원료로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환경건학시설로 눈에 띄네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제거시설이 환경 중요성을 일깨우는 건학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이 시설은 배출가스 중 하루 13t의 이산화탄소를 연속 포집하며 포집 과정에서 별도의 저장공간 없이 공정과정을 통해 부산물이 생산되는데 이 부산물은 시멘트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의 건설소재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이산화탄소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 공정은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국내 최초의 녹색기술 인증을 받았다.
특히 극동환경화학(주)에 대우건설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 시설은 그동안 이산화탄소 감축 및 처리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에 유일한 대안

처럼 여겨져 왔던 기존 방식을 뒤집고 이산화탄소 포집 후 이를 이용해 새로운 부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같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알려지면서 환경 관련 전문가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민환경단체의 견학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가톨릭환경연대 관계자들이 이 시설을 찾는데 이어 26일에는 환경단체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방문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정충의 극동환경 회장도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이 기술을 발전소 및 대규모 산업용 보일러 등에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시킬 수 있고 연간 16조 원의 신규 시장 창출과 1만6천 개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사업대상면적 10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기로

인천시가 지역 내 미조성 공원을 29일 시에 따르면 공원으로 지정만 한 채 오랜 시간 조성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던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사업 형태로 추진한다.
이번 시의 결정은 그동안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토지소유자들은 부지 일부를 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토지주가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10만㎡ 이상의 미조성 공원 부지 중 민간공원

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하는 경우 나머지 면적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향후에는 공원에서 해제도 가능하다.
민간공원 추진 자격은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거나 사업비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할 경우 가능하다. 또한 토지주 조합이나 개발회사 등도 자격을 갖춘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사업 대상 면적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민간공원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돼 사업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유시장, 월미은하레일 방문... 활용방안 해결 모색<1면에서>

이와 관련, 우송봉 시 대변인은 “앞선 대책회의 결과 사업 방향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차량 시승까지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활용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시장의 이날 월미은하레일 현장방문은 지난 15일 시장 집무실에서 오홍식 인천교통공사 사장, 한신공영, 중구 관계자 등과 가진 대책회의를 통해 활용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인천시 남구의회 의정비 12.7% 인상 추진... 시민사회단체 “젓밥에만 관심” 반발

인천시 남구의회가 의정비 10% 이상 인상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반발에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남구의회의원 의정비 인상안을 반대했다.
이 단체는 “다른 구의회의 경우, 각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 대부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7% 인상을 하고 있지만 남구는 12.7% 인상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남구

의 재정 상태를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구의회는 ‘의정비 형평성’을 주장하며 인상하려 하고 있지만 인천행정부 처지에 따르면 월정수당을 산출하는 근거는 재정력 지수”라며 “남구의 재정자립도 또한 인천 평균(49.7%)에 못 미치는 44.4%로, 최하위 수준인데 이를 고려치 않는다는 것은 남구의회가 젓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남지부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를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관계자는 “남구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남구의회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의원들이 의정비 동결로 열악한 남구 재정을 해결해야 하며 나아가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기자 ditto@kihoilbo.co.kr



대동호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선하고 엄선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감칠맛나는 젓갈을 만듭니다.

- 새우젓(오젓, 육젓, 추젓)도, 소매
- 액젓(까라니, 멸치, 갈치)취급전문
- 각종 젓갈류(오징어, 낙지, 명란, 청란)전문
- 꽃게, 간장게장 판매

※ 전국택배 배달가능

강화앞바다에서 직접잡은 김장생새우
당일조업 / 당일배송 / 염가판매

대표 김 총 님
최 대 권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547-68 외포항 젓갈 수산시장 내
☎032)933-1308 / 010.9276.9375

역삼지구 개발 첫삽… 용인 최대 규모

(69만여 m²)

낙후된 처인지역 대단위 상업·주거시설 등 본격 조성
2017년 말 완공목표… 동서 균형발전·경제 활성화 기대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이 29일 오후 용인시청 앞 대현프라자 후면 주차장에서 열렸다.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흥·수지구역에 비해 낙후된 처인지역에 대규모 상업·경제·주거지구 개발을 본격 시작하는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동서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기공식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찬민 시장, 조하원, 공무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격려사 및 축사, 기공식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찬민 시장은 축사에서 “역삼지구 사업 추진과 더불어 용인시의 오랜 난제인 동서 불균형 해결과 98만 시민의 삶의 질이 다함께 높아지는 ‘사람들의 용인’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69만 2천140㎡의 터에 진행될 예정으로 용인시 역대 개발사업 중 최대 규모다.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아파트 등 주택 5천292가구(1만4천 818명)를 수용하는 주거시설과 오피스텔, 호텔, 상가 등 상업·업무시설이 복합된 곳으로 조성된다. 사업 대상지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을 중심으로 중심상업용지(38만6천 117㎡)와 공공시설용지(30만6천23㎡)로 구성되며 경전철 역세권 상업용지, 경전철 역사 연계 환승주차장, 주상복합용지, 업무용지 등이 계획됐다. 기반시설로 사업대상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국도 42호선 도로 기능을 개선하고, 구역 외 인근 기반시설로 지방도 321호선의 일부를 개설하는 등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또 사업 대상지 안팎으로 복측 석성산 임야와 남측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남북 방향 녹지벨트, 금학천 연계 수변공원 등 동서 방향 수변 녹지공간 등 녹색생태 네트워크도 만들어진다. 상업·업무시설 이용자 휴식공간과 주민 보행로 등 쾌적한 도시 환경을 고조시킬 예정이다. 시는 민선6기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의 하나로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하

투자 유치와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를 적극 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업지구 내 용인경전철과 국도 42호선을 연계한 교통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 지역·행정·교육·문화·관광·주거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동서 균형발전 핵심 축으로 작용도록 할 구상이다.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8월 3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2009년 8월 28일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바 있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시행대행사는 ㈜다우아이앤씨, 시공사는 ㈜파라디스 글로벌이 맡는다.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용인=우승우 기자 bison88@khihoilbo.co.kr



용인시는 낙후된 처인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29일 시청 앞 대현프라자 주차장에서 가졌다.

방사능 안전 식재료 조례안 보류라니… 의정부 시민단체 “市 실효성 없다 호도”

시·의회에 즉각제정 촉구

의정부시와 시의회가 합작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주민청구 조례(안)’ 제정을 보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27일 의정부시가 시의회에 방사능 5대 거짓 보고를 해 해당 조례가 보류되도록 유도하고 시의원들은 허수아비 노릇을 했으며 발간하고 나섰다. 네트워크는 이날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지난 24일 오후 2시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정부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주민청구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에게 거짓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정부시가 상임위에 보고한 내용 중 ▶의정부 어린이집 방사능 검사기록 17대 필요, 37억 소요 ▶네트워크의 소요예산 자료 기계를 ‘간이검사 기계’로 지칭 ▶이미 제정된 타 시군의 실효성이 없다는 자문 받은 것 ▶방사능검사



국가 기준치 이하 공개 불법 ▶주민발의 방사능안전조례 상임위 위배 등 모두 거짓이라고 분개했다. 네트워크는 “의정부시가 5대 거짓보고를 통해 마치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시의원들을 호도해 심의 보류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의견서를 작성하고 거짓말을 한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 하고 주민발의 1만 명 의정부시민에게 당장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정부시의 거짓보고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위원회는 방사능 관련 공부를 하지 않아 집행부의 입맛대로 조례(안)이 보류되는데 허수아비 노릇을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정부=민부근 기자 bgmin@khihoilbo.co.kr 김주성 기자 kjs@khihoilbo.co.kr

경기 동부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공동노력”

5개 시군 4년제대학 제한 등 불합리한 제도 과제로 선정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함께 풀기 위해 경기 동부권 5개 시·군 규제개혁추진단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사진) 29일 오전 이천시청 5층 소회의실에 열린 회의에는 이천·광주·여주·양평·가평 규제개혁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5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선정



하고,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이자리에서 입법취지와 다르게 전국에서 5개 시군에만 불리

하게 적용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의 대표적인 규제인 ‘4년제 대학 입시제한’과 ‘공업지역 내 과도한 공장 신·증설 규제’ 등 2건의 규제를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이천시시는 ‘수질법’ 관련 중북규제,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산정방법 개선,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 등 3건, 여주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도로), 읍·동지역 도로확보 기준 제도 등 2건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함께 관심을 갖기로 했다. 특히 이들 5개 시·군 단장들은 중앙부처, 경기도,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등 자연보전권역 공동규제가 개선될 때까지 방관기로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hihoilbo.co.kr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은 경기도 지정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지역 대표 환경교육기관 ‘에버그린21’도, 환경교육센터 선정… 네트워크 중추로

안산시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최초로 경기도가 지정하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에버그린21은 이에 따라 공신력 있는 환경교육센터로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내실 있는 환경교육 운영 기관을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에버그린21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보호를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개선 이행 정도에 따라 인증하는 환경인증제와 학생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교육 후에는 수료자들이 네트

워크를 구축, 녹색생활실천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우수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환경교육센터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에버그린21은 앞으로 안산시 환경교육의 거점역할과 환경교육단체 및 인력 간 네트워크 구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도가 지원하는 환경교육사업 공모 시 우선 선정 기회 부여는 물론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받게 된다. 신윤관 대표이사는 “앞으로 안산의 대표 환경교육기관으로서, 시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와 한층 향상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최승필 기자 spc@khihoilbo.co.kr

시흥 갯골생태공원, 염전터 생태관광 메카로 2014 대한민국 조경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시흥시가 갯골생태공원 조성 사업으로 2014년 제7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생태조경부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립대에서 개최된 조경대상 시상식은 (사)한국조경학회가 주최하고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조경정책, 문화관광, 공원녹지, 생태조경 등 4개 부문에 대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심사해 총 11개 단체가 수상했다. 갯골생태공원은 옛 소래 염전터에 자리 잡았으며 1996년까지 소금을 생산하던 곳으로 내륙으로 옮겨 들어온 갯골은 세계에서조차 보기 드문 뽕이 움직이는 형태의 경사가 급한 내만갯벌로 서해안과 동일하게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며 산림청 회

귀식물로 지정된 모새탈 군락지가 전 지역에 고르게 퍼져 있는 등 갯벌 생태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생태의 보고다. 이곳을 시는 옛 염전문화 활용 및 생태복원을 목표로 2009년에 착공해 5년간 사업비 183억 원을 투입, 2014년까지 중심시설지구에 각종 편의시설 및 체험장 등을 조성했다. 시는 갯골생태공원 조성으로 시흥 갯골을 시민들의 휴식공간, 해양환경 생태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더 나아가 수도권 해양생태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 사생 그림 그리기 대회’ 우수작품 20여점에 대한 전시회는 북부청사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의정부=민부근 기자 bgmin@김주성 기자 kjs@

기호일보 구독문의
032-761-0007

경기북부청 다문화포럼
공동체 일원으로 역량 발휘

경기도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 홀에서 다문화담당 공무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경기도 다문화 인식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소통과 공감, 포용과 이해, 사회통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임원선 의정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문화 가족 관계증진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체계화’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생애주기를 맞춤형 관계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주여성 자조단체 특두미의 페레라 이레사 대표의 ‘다문화가정 감동과 울림 있는 성공사례’를 발표, 포럼 참여자들은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방향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복자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이번 포럼이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사회 통합 실현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문화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의 개선을 통해 다문화 가족 및 도민 모두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안에서 가진 역량을 모두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 사생 그림 그리기 대회’ 우수작품 20여점에 대한 전시회는 북부청사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의정부=민부근 기자 bgmin@김주성 기자 kjs@

안양 규제개혁119센터, 내달부터 온오프 소통

안양시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 온·오프 라인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119센터’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규제개혁 전용전화(031-8045-2119)를 개설하고 시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119’ 메뉴를 신설했다. 아울러 시·구청 민원실과 31개 각 동주민센터에는 규제개혁 신고를 전담하는 ‘규제개혁119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

고된 규제개혁 시민 제안은 시 담당부서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시민에게 통보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 21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공포해 불합리한 규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규제를 신고한 시민은 신분 보호를 받게 된다. 안양=이정택 기자 jitee6151@khihoilbo.co.kr

고양 관광명소, 세계적 여행잡지 ‘TPO’에 실려

고양지역 관광명소들이 세계적 여행정보잡지 TPO매거진에 차례로 소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30일과 31일 이틀간 국제협력기구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의 매거진 기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기구에 올해 첫 가입한 뒤 현재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TPO 12월호 매거진에 고양시를 적극 홍보해 지역 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행전문기자 초청 행사를 개최한다. 초청 기자들은 1박2일 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오릉을 비롯해 고양원마운트와 아쿠아플라넷 및 명지병원(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 엠블호텔 등을 취재할 계

획이다. 이번 취재기사는 TPO매거진 32호와 함께 ABROAD 12월호, 네이비 매거진 캐스트 여행기사, 제주항공기 내지 join en joy 12월호 등에 다양하게 게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초청 기자들에게 고양지역의 매력적인 곳을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여행하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로 마케팅하기 위해 최고의 맛집, 쇼핑 거리, 노래하는 분수대 등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자매결연도시 우호도시와 함께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국제관광기구 TPO에 가입해 해외 70여 개 도시 및 정부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대북전단에 날아간 남북 고위급 접촉 기회

북측 “회담 개최와 방입 선택하라” 골자 통지문 발송
정부 “통제할 사안 아니야...” 사실상 수용거부 밝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방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29일 우리 측에 보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부당한 요구 수용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30일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방안은 일단 성사가 힘들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국방위 서기실 명의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 채널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왔다. 통일부는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 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배라 살포를 방입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우리 측이 관계 개선의 전제,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북측이)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배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는 우리 측의 책임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전통문은 우리 정부가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 제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29일까지 밝혀 줄 것을 전날 저녁 대북전통문을 통해 촉구한 뒤 나온 것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한 답변 성격이 짙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제기하는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우리 체제 특성상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을 포함해 여러 계기에 이런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전제조건화하는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남북이 합의한 데 따라 우리 측이 제의한 10월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우리가 제의한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11월 초까지 개최하기로 한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2차 고위급 접촉을 위한 추가적인 대북 제안이나 전통문 발신은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변인은 “논평으로 우리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 별도의 조치를 고

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음 2차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측으로부터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을 위한 구체적인 날짜나 입장을 추가로 전해오지 않을 경우 ‘10월 말~11월 초’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합의는 완전히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4월 황병서 등 북한 고위급 3인방의 인천 방문 당시 ‘10월 말~11월 초’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북한에 ‘30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측은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아 왔다. /연합뉴스

내부고발자 부당대우 ▲ 인권위, 권리구제 ‘딴집’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인권위는 정작 이들 내부 고발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으며 진정을 제출한 사례가 49건에 이르렀다.

내부 고발자들의 진정이 2010년 10건에서 2013년 14건으로 40%나 증가했지만 인권위가 해결한 진정은 단 2건, 4%에 불과했다. 나머지 96%의 진정에 대해서는 진정을 취하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나 기각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사건 종결 일수도 일반적인 진정 사건에 비해 한 달이나 짧았다. 최근 4년간 인권위 진정사건에 평균 109일이 소요된 반면, 내부 고발자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평균 처리 일수는 8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기관 및 구금·보호시설,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진정·중언·진술·자료 제출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신분이나 처우에 있어 불이익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흥복 기자 hjj@khihoilbo.co.kr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연합뉴스

야권, 헌법개정 ‘역설’ ... 박 대통령 미소만 ‘방긋’

공식브리핑에선 “없었다”
실제로 회동 자리서 거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 회동 자리에서 애초 공식 발표와는 달리 개헌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동 직후 양당 정책위원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개헌 이야기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요청 때문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꽤 시간을 할애해서 개헌 부분에 관한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개헌이 ‘경제 불라췌’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며면서도 “경제에도 골든타임이 있지만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평소 지론인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넘기면 개헌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논의는 일단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개헌 문제의 공론화를 주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말없이 듣기만 하면서 미소를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이 대화 도중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며 농담조로 이야기를 건네자, 박 대통령은 웃으면서 “그러시냐”며 받아넘겼다는 후문이다. 한편, 개헌과 관련, “이 원내대표

가 회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개헌은 문 위원장이 내일 많이 이야기할 테니까 오늘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해 가급적 요청한 대로 발표를 한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그러나 공식 브리핑 후 지도부가 야당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일자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문 위원장이 개헌 언급 사실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경제살리기 재정적자도 불사”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기한 내 예산처리 당부도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환기시킨 뒤,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 원 늘려 편성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내 3대 핵심과제의 예산안 반영을 설명하고, 규제 개혁 및 정부조직법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이번 예산은 우리의 경제,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고 예산안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디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국민행복의 디딤돌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12월 29일) 내 처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3천억 원의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중국과 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이른 시일 내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인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핵심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남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공무원들의 이해와 개혁에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주택시장정상화법안,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유병언법’,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또 “내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국가의 기본책임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여의도 중계탑

김태원 의원, 與 유일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에 뽑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의원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뽑은 2014년 국토교통위에서는 3명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새누리당에서는 김태원 의원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위례·동탄2신도시 등 일부 인기 지역에 등장한 ‘뺏다방’과 ‘불양권 야시장’, 청약통장 불법 거래, 다운계약서 등 불법 거래 문제를 지적하고, 부당한 한랭 고속열차 요금체계와 열차의 안전문제에 대해 실태를 밝혀 내는 등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실련은 “김 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판 문제,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 부채 증가, 부실·불법 건설업체 증가 문제,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지원 등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문제를 지적해 우수한 활약을 보였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김태원 의원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정치라고 생각하고 노력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상시국감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으로 선정 소감을 대신했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박광온 의원, 어린이집 지원·확충 ‘보육세트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정) 국회의원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보육 세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박 의원은 보육료가 4년째 표준보육료단가인 월 29만2천 원에 미치지 못하는 월 22만 원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전체 보육예산을 책정한 다음 지자체의 현실을 뒤로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보육 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보육정책위를 구성해 매년 보육료 지원 단가를 결정, 보육료를 현실화시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보육정책위는 보육전문가 및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으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또 주택법을 개정해 신설되는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시 용적률 혜택을 주고, 지역주민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박 의원은 “보육은 민생정책의 가장 기본이자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를 현실화한다면 그 혜택을 학부모와 아이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이 뾰족한 대안이 없어 정제된 상황에서 주택법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광온 기자 ksp@khihoilbo.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잇따라 정국교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지금까지 관행상 여당과 야당 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하루씩 이틀간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 왔으나, 이번 정국교회에서는 빠듯한 일정 때문에 같은 날 대표연설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연설에서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협조를, 문 비대위원장은 개헌의 필요성과 정부 경제정책의 하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김 대표 측에 따르면 연설안은 복지, 사회적 대타협, 연금 개혁, 민생경제, 남북 문제, 오픈프라이머리 등의 순으로 짜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수조 원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임을 환기시키고, 공무원단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는 점도 부각할 방침이다.

오늘 여야 정국교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김무성] 공무원연금·조세 개혁 초점
[문희상] 개헌·사이버검열 무제중심

복지 부문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일이며,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조세 부담률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는 입장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평소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김 대표의 경제철학과도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기로 했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주축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개헌 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경제살리기

에 매진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존중해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5·24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선에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설 막바지에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개헌 논의를 핵심으로 외교정책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 등으로 항목을

나뉘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촉구하기로 했다. 핵심 메시지는 개헌으로,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을 덮어 둘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이어 대외관계·대중관계 등 외교관계 전반과 대북전단 문제, 전작권 환수 문제 등 안보 이슈에서 정부의 대처를 질타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 측은 “박근혜정부가 외교안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알려졌다지만, 실제로 외교안보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사례를 쫓

아거나 반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사이버 검열 논란’을 언급하며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문제 인식을 연설문에 녹이기로 했다. 경제정책에서는 각종 서민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우려를 담아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 경제부총리가 이명박정부의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추진된 자원외교 부실 논란에 대해서도 거론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을 독려하고,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한편,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방산 비리 문제 해결책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책 등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품질 뛰어난 중기제품 가격 현실화 시급”

인천조달청 현장간담회… 업체, 기술 경쟁 위한 지원 요구
김윤길 청장 “민·관 소통 채널 마련… 건의사항 반영 노력”

인천지방조달청은 29일 지역 조달업체 12개 사,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한 민관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중심 행정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개최했으며, 인천조달청은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과 같은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을 홍보하는 한편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조달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처리 장비 생

산업체인 동양수기산업(주) 대표는 “조달 우수 제품은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으로 각 수요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기술 혁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비용이 일반 제품보다 많이 발생했으므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펄프 생산업체인 ㈜대진정공 및 ㈜두크 대표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보다 품질 위주의 경쟁이 필요함으로, 우수 제품 가격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인천조달청은 “조달 우수 제품은 우수한 기술력이 접목된 고품질 제품으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나아가도록 건인자 역할을 하는 제도로, 우수 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달업체들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품질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에 따른 제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 제값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길 인천조달청장은 “지역 조달업체가 함께함으로써 공공·민간 부문의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공공 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발굴과 오늘 건의된 내용은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bi@kihoilbo.co.kr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와인 창고 대방출전’을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세계 유명 와인 알뜰구매 기회

신세계백 인천점 내일부터 인기품목 최대 80% 할인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세계 유명 와인을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와인 창고 대방출전’을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지하 1층 와인 매장 및 행사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칠레 등 전세계 인기 와인 1천여 종 3만여 병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신세계 인천점은 ▶2014 베스트 ▶보르도 그랑크뤼 특가 ▶칠레 와인 특집전 ▶고독점+최저가 반전와인 기획전 등 4가지 테마로 분류해 판매한다. 5천~9천 원 와인 초특가

실속 와인도 함께 진행한다.

2014 베스트에서는 2014년 많은 고객들에게 선택받은 품질이 검증된 인기 와인 ‘바롱 레스타크 보르도 루즈’를 1만5천 원, ‘이기갈 지공다스’를 3만9천 원에 선보인다.

또 전통적인 인기 상품인 프랑스 보르도 그랑크뤼 특가에서는 와인의 슈퍼스타로 통하는 보르도 그랑크뤼 와인 ‘사도 까망삭’을 4만 8천 원에 내렸다.

또한 신세계카드(씨티·삼성·포인트)로 당일 100만·200만·300만·500만 원 이상 구매 시 구매금액의 5%에 해당하는 상품권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해 가격 할인에 더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안재국 기자 ajk@kihoilbo.co.kr

고3 수험생에 에버랜드가 쏜다

수능 당일 간식 이벤트
최대 71% 입장권 할인도

에버랜드는 오는 11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로 수험생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고등학교 3학년 1개 학급을 선정, 수능 당일 피자과 음료를 간식으로 전달하고 시험이 끝

난 뒤 학급 학생 전원에게 에버랜드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방식은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고3 수험생 본인이나 친구·가족 누구나 에버랜드 페이스북(facebook.com/witheverland)을 방문, 댓글을 남기면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의 학급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에버랜드는 또 수험생들이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를 저

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11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캐리비안베이는 이 기간 71% 할인된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에버랜드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정상가 대비 63% 할인된 1만6천 원에,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57% 할인된 2만 원에 각각 이용할 수 있다.

bison88@kihoilbo.co.kr

서울외곽순환로 정류소 5곳 ‘하이패스 365서비스’ 운영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버스환승 정류소 5곳(청계·구리·성남·김포·시흥)에 고객들이 편리하게 하이패스 선불카드 충전과 미납통행료 조회·납부가 가능한 ‘hi-pass 365서비스 코너’ 10곳을 3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 외곽순환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부득이하게 미납 통행료가 발생하거나 카드 충전이 필요한 경우 인근의 톨게이트 사무실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센터를 직접 방문, 직원

들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다소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버스환승 정류소 5곳, 양방향 10곳에 hi-pass 365서비스 코너가 설치·운영되면서 고객 편의에 따라 사무실 또는 무인(無人) 서비스 코너를 선택해 언제 어디서나 일처리가 가능해 불편이 크게 감소하고 컴퓨터와 무인 시스템에 익숙한 젊은 고객층이 반길 듯하다.

서비스 시스템은 하이패스 선불카드 충전, 미납 통행료 조회와 즉석 납부가 가능하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제11회 전국 청소년 통일염원 문화예술대회

The 11th National Youth's Art&Culture Festival for the Korea's Re-unification

전국 청소년 통일염원 글짓기·그림그리기·웅변대회

시상내역 : 통일부장관상, 인천광역시상, 인천시의회의장상, 인천시교육감상
경기도지사상, 경기도의회의장상, 교육장상 등

접수기간 글짓기, 그림 - 2014년 10월 13일(월) ~ 10월 31일(금요일)까지
웅변대회 종료

대 상 전국 초·중·고등학생 누구나

주 제 남북평화통일에 관련된 내용

작성방법 모든 출품작에 제목, 소속학교, 학년 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뒷면 기재

글짓기 - 200자 원고지 반드시 자필로 작성(장르는 자유)

그림 - 8절·4절 도화지, 크레파스화, 수채화(도화지 개인준비)

기 타 인터넷 복사 또는 대필원고, 타 대회 출품작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순수한 학생의 생각과 실천방법 등 서술(우편 및 방문접수 관계로 학생수준에 맞춰 심사)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10월 31일 우편소인분까지)

-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343-1 정산빌딩 9층 기호일보 총무국

문의 기호일보 032)761-0007 또는 http://www.kihoilbo.co.kr

푸르미가족봉사단 032)435-5353 또는 http://cafe.naver.com/purumi1004



중소형 단지에 저렴한 분양가 매력 교육시설·조망권 갖춰 쏠린 인기

고양시 삼성택지지구에 오랜만에 선보인 민영아파트 ‘동일스위트 1차’에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청약 열풍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판상형 4베이 설계로 수요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내며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동일스위트 1차’는 삼성택지지구 7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66~84㎡로 968가구가 신축돼 2017년 5월 입주 예정이다. 주택형별 가구 수는 ▶66㎡ 260가구 ▶76㎡ 294가구 ▶84㎡A 334가구 ▶84㎡B 80가구로 전 가구 선호도 높은 중소형 전용면적으로 구성됐다.

29일 특별공급에 나선 가운데 30일 1~2순위 청약에 이어 31일 3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동일스위트 1차’는 삼성택지지구가 갖춘 서울 출퇴근 용이한 입지적 장점과 단지 바로 맞은편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시립어린이집,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젊은 부부들의 호응이 높다.

또한 중소형 면적임에도 골프장 조망권까지 갖추고 있어 전 연령층에서 방문객들이 몰리며 견본주택 2층에 마련된 전시 가구를 관람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이끌고 있다.

견본주택에는 전용면적 66㎡·76

㎡·84㎡A 세 개의 전시 가구가 마련된 가운데 전시 가구를 둘러본 방문객들은 다양한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도를 높은 설계에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특히 전면부에 거실과 침실을 모두 배치한 판상형 4베이 구조로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한 점과 현관, 주방, 거실에 적용된 알파 공간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또한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분양가에 포함돼 기본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가전·가구도 소비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한몫한 가운데 전 주택형 자녀방에는 볼락이장이 설치되고 안방에는 대형 드레스룸과 화장대, 부부욕실에는 비데가 제공된다.

주방에는 다목적 전기오븐과 4구 가스쿠팡 외에 아일랜드식탁에 설치된 전기쿠팡에도 주방들의 호응이 높았다.

‘동일스위트 1차’ 전용 84㎡형의 총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 3억6천840만 원이며 계약금 10%는 본납제로 계약 시 분양가의 5%를 납부하고 한 달 뒤 나머지 5%를 지불하면 된다. 중도금은 이자후불제가 적용돼 초기 부담을 낮췄다.

이는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내 동일 면적 아파트 대비 약 1억 원 가량 저렴하며, 지난해 공급돼 올 초 1

00% 계약 마감된 ‘삼성 2차 아이파크’에 비해서도 약 2천500만 원 저렴한 가격이다.

29일 견본주택을 찾은 주부 김은정(35·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씨는 견본주택을 둘러본 후 “삼성지구에서 오랜만에 공급되는 중소형 단지라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와서 보니 방과 거실뿐만 아니라 욕실까지 널찍한 설계가 마음에 든다”며 “분양가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한데다가, 발코니 확장 시 기본 제공되는 옵션들이 다양해 향후 시세차익도 쟁길 수 있을 것 같아 청약을 넣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주)동일스위트의 분양 관계자는 “견본주택이 첫선을 보인 지난 24일에만 7천5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주말을 맞아 25일과 26일에는 무려 2만3천500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3일간 총 3만1천여 명의 관람객이 운집하며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전했다.

‘고양 삼성 동일스위트 1차’ 견본주택은 고양시 덕양구 삼성택지지구 10블록에 위치해 있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11월 6일에 실시하고 당첨자 정당 계약은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분양 문의: ☎02-381-7373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고양 삼성택지지구에 선보인 민영아파트 ‘동일스위트 1차’가 첫선을 보인 지난 24일 7천5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동일스위트 1차’는 29일 특별공급에 나선 가운데 30일 1~2순위 청약에 이어 31일 3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고양 삼성지구 ‘동일스위트 1차’ 청약 열풍… 3만여 명 북새통

음식 맛보고 문화 체험... 눈으로 먼저 떠나는 ‘세계 여행’

경기관광공, 내달 7~9일 킨텍스서 제12회 국제관광박람회 개최
국내외 100여 종 투어상품 판매... 와인·의상경연 등 볼거리 풍성

경기관광공사는 제12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여행, 그 설렘의 시작-두 번째 이야기’를 테마로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G마켓과 옥션이 참가해 경기도권

여행 및 레저상품을 특가에 판매한다. 또 국내 유수 여행사가 참가해 국내외 여행상품과 경기도내 휴양림, 펜션, 특급호텔, 캠핑장 등을 할인된 가격에 한정 판매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의 대사 및 외교관들이 참가하는 문화 및 와인, 의상 경연도 풍성한 볼거

리를 제공한다. 특히 G마켓과 옥션은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경기도내 50여 개 관광지과 숙박시설 등의 관광상품을 특가에 판매하는 ‘경기 Grand Sale 특별관’을 운영한다. 이 중 일부는 현장에서 최대 30%까지 추가 할인을 적용해 판매한다. 하나투어와 경기도 여행사 5개 업체가 참가해 국내외 여행상품 100여 종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특가 할인 상품전도 눈

여겨볼 만하다. 하나투어는 국내뿐 아니라 유럽과 미주·동남아·중국 등의 여행상품을 초특가로 한정 판매한다. 경기도 여행사들이 운영하는 경기도 여행상품관에서는 시·군별 특화상품과 특별 테마 상품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사와 외교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복과 자국 전통의상으로 패션쇼를 열고,

자국의 문화와 와인을 소개하는 ‘문화 외교전’도 열린다.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세계 문화&와인 페스티벌’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전시되고, 국내외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와인을 체험할 수 있는 와인 시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다음 달 7일에는 100여 명의 국내 의료관광 관련 종사자와 사업자 등이 참여해 의료관광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의

료관광 포럼이 열리며, 의료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관광 JOB 페스티벌’도 개최된다. 경기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은 “경기국제관광박람회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접하고 활발한 관광 비즈니스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축제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문원태 기자 myt@khihoilbo.co.kr



실버바람이 분다... 경기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대성황

‘2014 경기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가 2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굿모닝 경기도, 실버바람이 분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비롯해 구인업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기도내 시·군에서 참여한 노인들의 인형극, 동화구연, 난타, 댄스, 고전무용, 마술 등 12개 팀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펼쳤다.

문원태 기자 myt@khihoilbo.co.kr

공항 운영 안전 실시간 확인 인천공항 관리시스템 개발 데이터 기반 정확도 높아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안전 관련 시설과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항안전운영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2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관리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공항운영 상태 실시간 확인 및 관리, 공항 안전과 관련된 각종 지표와 위험요소 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에 대비한 자료구축 등이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는 과학적인 안전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해온 안전 운영 및 관리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화됨에 따라 행정력 소모가 대폭 절감되는 것은 물론, 데이터에 기반해 보다 철저하고 정확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운영 점검에 실명제가 도입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2억여

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 두달 간 시스템 사용자 교육과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원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안전운영관리시스템은 안전운영 관리를 업무프로세스의 획기적 개선에 가져올 뿐 아니라, 정부 3.0 정책에 부합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근 기자 ajk@khihoilbo.co.kr

강화 강서·교동·삼도 3개 농협 조합원 79% 압도적 ‘합병’ 찬성

강화 북부권역 3개 농협이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각각 실시해 평균 79.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합병을 가결했다. 농협 강화군지부(지부장 이문재)에 따르면 자율 합병을 추진 중인 강화북부권역 강서·교동·삼도 3개 농협은 28일 각 농협별로 투표소를 설치하고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했다. 이날 투표는 3개 농협 전체 조합원 4천765명 중 3천401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 71.4%에 찬성률은 강서농협 91.8%, 교동농협 88.9%, 삼도농협 60.0%로 각각 과반수가 찬성해 합병을 가결했다. 이는 쌀시장 개방 등 농업·농촌 환경의 변화와 저성장·저금리·고령화로 인한 조합 경영 여건의 어려

운 상황에서 합병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실익사업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뜻이 전체 조합원의 79.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각 농협은 대의원 총회를 열어 농협별로 10명의 설립위원을 선출해 총 30명이 모인 설립위원회에서 임원 선임과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창립 총회를 거쳐 합병농협 정관 및 사업계획을 확정, 정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해 내년 1월까지 합병농협(가칭 서강화농협)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합병 가결로 강화 지역농협은 기존의 8개 농협에서 강화농협만 존속하고, 7개 농협은 2개 농협으로 합병하게 돼 3개 농협으로 남게 된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hihoilbo.co.kr

미래 대체식량 부각 곤충 실용화 모색 국제 토론회

농촌진흥청이 ‘곤충 식품화와 기능성 소재 실용화를 위한 국제 학술 토론회’를 30일 국립농업과학원 대강당에서 연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과 중국·베트남·네덜란드 등 4개국의 대학과 국립 연구소, 농업인 등 관련 전문가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을 2부로 나눠 진행했다. 특히 주제발표자로 곤충을 미래 식량 대체자원으로 지목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자원관리자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곤충학과 교수인 아놀드 반 휴이스(van Huis Arnold)를 비롯해 중국의 왕둔(Dun Wang), 베트남의 은구옌 마우 투안(Nguyen Mau Tuan) 등 식용곤충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심을 끈다. 토론회 1부는 ‘곤충 식품화를 위한 국내외의 연구 동향과 사례’를 주제로 곤충 식품화를 위한 국내 연구 현황,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용곤충 개발 전략 등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곤충 기능성소재 개발·실용화’를 주제로 중국 곤충식품과 기능성소재 개발 동향, 베트남 곤충식품과 기능성소재 개발 동향, 곤충 추출물을 이용한 항암 활성 기전 연구, 곤충 항생펩타이드를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등에 대해 발표한다. 박노훈 기자 nhp@khihoilbo.co.kr

스터디센터·서울대 품은 ‘교육1번지’

■시흥 배곧신도시 랜드마크 ‘한라비발디 캠퍼스’

해의 명문대 모티브 도서관
개별~그룹 학습 환경 제공
바다 조망·레저시설 갖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의 조성 소식에 따라 수도권 서부 유망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흥 배곧신도시에 핵심 입지를 자랑하는 대규모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곧신도시는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건너편, 정왕나들목 주변에 조성 중인 시흥시 대표 개발 사업이다. 시흥·안산스마트허브와 인근 인천 남동인터스파크 등 3개의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어 수요가 풍부하면서도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 주거지로서는 최적의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제3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강남까지 40~5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의 연계도 수월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이곳에 (주)한라(옛 한라건설)가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를 시작으로 특별계획구역의 공급에 돌입해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는 1차로 2천701가구가 공급되며, 앞으로 3차에 걸쳐 6천700가구의 매머드급 규모의 교육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이는 배곧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로 앞으로 배곧신도시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전망이다.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는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C3블록에 2천701가구 규모로 지하 2층·지상 40층, 12개 동에 전용면적 71~138㎡로 공급될 계획이다. 전용면적별로는 ▶71㎡ 777가구 ▶84㎡ 1천652가구 ▶119㎡ 200가구 ▶136㎡ 67가구 ▶138㎡ 67가구 등으로 구성돼 85㎡ 이하 중소형 비중이 약 90%를 차지한다. 교육특화단지인 이곳에는 별도의 스터디센터가 건설된다. 미

국 코넬대학의 링컨홀을 모티브로 명문 대학 도서관의 학습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도서관이 비치돼 있는 오픈본고와 그룹스터디가 가능한 스터디룸, 일대일 스터디가 가능한 별도의 룸들과 조용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열람실이 별도로 구성된다. 또한 서울대와 연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단지 내에 개설될 예정이다. 향후 단지 바로 옆으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서울대 사범대 협력 시범 초·중·고가 들어설 예정으로 서울대, 시흥시,



경기도교육청이 MOU 협약을 추진 중이다. 신세계사이먼의 대형 쇼핑시설인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도 들어설 예정에 있어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이 외에도 단지 안으로는 시원한 바다 조망을 담은 피트니스와 골프연습장 등이 조성된다.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건반주택은 서해안로 405번지(옛 정왕동 1771-1번지)로 서해고교 삼거리 인근에 위치한다. 문의:☎1688-2600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hihoilbo.co.kr

근린공원 둘러싸인 친환경 녹색단지

■용인 기흥 서천택지지구 ‘힐스테이트 매미산’

서울·분당 접근성 우수
생활편의 인프라도 탄탄
남향 위주... 4베이 설계

현대엔지니어링은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서천택지개발지구 5블록에 건설 예정인 ‘힐스테이트 매미산’ 건반주택을 31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매미산’은 지하 1층·지상 14~18층 12개 동, 754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433가구 ▶84㎡B 108가구 ▶84㎡C 117가구 ▶97㎡ 96가구 등 754가구다. 입주는 2016년 하반기 예정이다.전체 가구수의 87%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가장 높은 84㎡형이다. ‘힐스테이트 매미산’이 들어서는 서천지구는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일원에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다. 수원시 영통구와 접해 있으며 전체 지구면적은 114만 ㎡다. 총 6개 블록으로 개발됐으며 이미 5개 블록(1·2·3·4·6)은 아파트 공급을 마친 상태다. 서천지구 마지막 공급 아파트인 만큼 입주와 동시에 서천지구 내에 갖춰진 생활편의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의 강남으로 통하는 영통지구가 바로 인근에 위치, 홈플러스(영통점)·롯데마트(영통점)·메가박스(영통점) 등의 이용이 편리해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으로 매미산과 아람산이 위치해 등산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2.7km 길이의 서천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다. 택지지구에 조성된 서천레스피아, 남산근린공원, 서그네근린공원, 농서근린공원 등의 다양한 근린공원은 입주민들에게 풍부한 녹지환경을 제공한다. 전 가구 남향 위주(남동~남

지구다. 수원시 영통구와 접해 있으며 전체 지구면적은 114만 ㎡다. 총 6개 블록으로 개발됐으며 이미 5개 블록(1·2·3·4·6)은 아파트 공급을 마친 상태다. 서천지구 마지막 공급 아파트인 만큼 입주와 동시에 서천지구 내에 갖춰진 생활편의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의 강남으로 통하는 영통지구가 바로 인근에 위치, 홈플러스(영통점)·롯데마트(영통점)·메가박스(영통점) 등의 이용이 편리해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으로 매미산과 아람산이 위치해 등산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2.7km 길이의 서천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다. 택지지구에 조성된 서천레스피아, 남산근린공원, 서그네근린공원, 농서근린공원 등의 다양한 근린공원은 입주민들에게 풍부한 녹지환경을 제공한다. 전 가구 남향 위주(남동~남



서)의 판상형 4베이로 설계됐으며, 확장 시 팬트리가 제공된다. 단지 인근에 서농초, 서천중(혁신학교), 서천고가 위치해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췄다. 또한 경희대 국제캠퍼스 및 영통지구 학원가도 가깝다. 교통도 편리하다. 경부고속도로 및 서울~용인 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및 지방으로의 이동이 간편하다. 또한 분당선 영통역을

이용하면 분당이나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광역버스를 이용한 강남 접근성도 우수하다. 한편, 건반주택은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11 서천고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엔코와 합병 후 수도권에서 처음 선보이는 아파트인 만큼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용인=우송우 기자 bison88@khihoilbo.co.kr

음악~통화 ‘스마트’한 목걸이

삼성전자는 목걸이 형태의 착용형(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 서클을 29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사용자가 자석 센서가 장착된 목걸이 앞부분을 분리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고, 불이면 통화가 종료되는 스마트 마그네틱 컨트롤 기능을 갖췄다.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다가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을 분리하면 곧바로 기어 서클로 이어져 통화할 수 있다. 통화뿐 아니라 음악 재생 기능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목에 거는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 서클 본격 출시

수신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 일정, 메신저 내용 등도 음성으로 안내해 줘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유용하다. 제품은 흰색과 청회색, 검은색의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으며, 판매 가격은 10만9천 원이다. 블루투스

심원규 기자 sims@khihoilbo.co.kr

진료
내용

종합검진 / 암검진 / 공단검진
MRI, CT검진 / 위·대장내시경 검진

예 방 접 중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 A형간염, 독감, Tdap백신(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인천) 예약문의 032)890-8700
의료법상 의료행위 / 42007-호-41041

동네방네

용인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용인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30일 용인 면허시험장에 문을 연다. 용인센터는 수도권 약 28만 명의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운전 능력 측정과 학교교육(2시간), 기능교육(4시간), 도로주행교육(12시간)을 무료로 지원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 개조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한다. 이용 문의는 용인센터(☎031-289-0180)로 하면 된다. 용인=우승호 기자 bison88@khihoilbo.co.kr

내일부터 이천 올면 사계 축제

‘제10회 올면의 사계 축제’가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이천시 올면 복지회관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5년부터 열린 이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록 규모가 작은 지역 축제지만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의 야생화 및 농수명인 선발, 자연염색 작품전,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의 작품 기부 행사 프로그램에 추가해 한마음 노래자랑을 마을별로 접수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hihoilbo.co.kr

부천 장애인택시 기본요금 할인

부천시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장애인 복지택시의 기본요금을 1천500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요금 인하는 관내 장애인 2급을 대상으로 하며, 인하 요금은 이날 0시부터 적용된다. 기본요금 인하와 함께 복지택시에는 시간강산요금 및 시외할증 20%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부천시 관내는 1km당 200원, 시외지역은 시 경계로부터 1km당 300원씩 추가 요금을 적용하고 심야에는 20% 할증요금을 적용한다. 단, 주차요금, 통행료 등 부가적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요금 부담으로 이용을 꺼려 왔던 장애인들이 복지택시(☎1588-3815)를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남양주시 ‘농업기술대전’ 팡파르

남양주시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의날을 기념하고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기술대전’을 개최한다. ‘농업과 전통의 만남’이란 주제로 열리는 농업기술대전은 31일 오전 11시 농업인의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2014년 남양주를 빛낸 농업인 5명의 시상이 이뤄진다. 오후에는 전통혼례, 남사당놀이, 농업인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남양주=윤덕신 기자 dsyun@khihoilbo.co.kr 조한재 기자 chj@khihoilbo.co.kr

을지대, 국제간호학술대회 개최

을지대학교는 31일 서울 강남구 호 텔리베라 베르사이유홀에서 ‘제3회 국제 간호학술대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간호전문직에서 근본적 변혁을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패트리샤 베너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명예교수, 국내 1호 간호학 박사이며 2011년 간호계의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국제간호대상’을 수상한 김수지 말라위 대양간호대학 학장, 미호코 이와와키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 등 국내외 석학 400여 명이 참석한다. 간호 리더십과 간호사의 역할, 근거 기반 간호,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 간호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일본 게이오대학을 비롯해 국내외의 29개 대학, 병원, 연구소에서 제출한 8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성남=이규식 기자 ks23@khihoilbo.co.kr

바비큐 먹고 원시생활에 푹~ 전곡리안과 함께 시간탐험

연천 전곡 구석기축제 내일 개막... 이색 볼거리 ‘가득’

올해로 22회를 맞는 연천 전곡 리구석기축제가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곡선사유적지에서 ‘전곡리안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어느 때보다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구석기축제는 연천군이 주최하고 전곡리구석기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한양대가 후원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는 구석기축제는 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체험·공연·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체험행사 대표 프로그램으로 구석기 바비큐 체험을 비롯해 세계구석기체험마을, 구석기 퍼포먼스, 구석기 힐링캠프 등 4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공연행사로는 경희대 학생이 펼치는 개막식 특별공연과 EBS 닥터방유치원 공연, 지역 문화공연, 구석기 난타 퍼포먼스, 구석기 게릴라 공연 등이 기다리고 있다. 전시행사로도 문인단체와 주민자치센터가 주최하는 지역 문화 전시, 발굴피트 전시, 구석기 볼거리존, 전곡선사박물관 상설 특별전시 등이 있으며 경연행사

난타·게릴라 공연 풍성 구석기 마을 체험·캠핑 온가족 맞춤 행사 마련

로 구석기축제 사진콘테스트, 다 함께 으르르차 등이 마련돼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부대행사로 연천농산물 근장터, 연천관광투어, 농경생활 체험, 축제음식점, 승마 체험장, 구석기 돌레길 등산, 모노레일 등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번 축제는 세계 구석기 유적 및 박물관들과 교류를 통해 전곡리유적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연천군은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매 주말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DMZ관광열차에서 원시인 퍼포먼스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구석기시대와 선사문화를 교육·농 체험 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족 중심형 행사로 꾸민다”며 많이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더욱이 이번 축제에는 연천군의 대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농특산물 근장터와 함께 꾸민 것이 특징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hihoilbo.co.kr

▼ 원시인으로 분장한 연기자들이 구석기 게릴라 공연 등을 펼친다.



평택 학교현장 맞춤 컨설팅

교육지원청 지원단 구성 회계·계약 노하우 전수

평택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선 학교 현장의 실질적 업무 지원을 위해 ‘학교현장 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현장 지원단은 계약업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육지원청 직원들과 학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행정실장들로 구성돼 일선 학교의 용역·물품·시설 등 사업 업무를 집행한다. 또한 인사·회계·보수·관리(물품·재산·시설) 등 학교에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야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이와 함께 일선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공동 계약을 추진하고,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한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와 업무 분야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지원청-학교, 학교-학교 간 협조체제가 구축돼 교육행정 업무 역량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지원행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연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에서 공동 계약과 시설사업 업무를



평택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다음 달 1일부터 일선 학교 현장의 실질적 업무를 지원한다.

집행함으로써 일선 학교 업무 경감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업무 분야별 컨설팅은 학교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 행정이 한층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윤영준 기자 yjy@khihoilbo.co.kr

화성시, 전곡해양산단 입주기업 전폭 지원

건축 인·허가 매뉴얼 개발... 조기 인프라 구축에 온힘 이화순 부시장 “기업활동 불편 없도록 행·재정 뒷받침”

화성시가 요트마리나로 유명한 전곡항에 조성 중인 전곡해양일반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적극 지원키로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화순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 기업정책과와 관련 부서, 화성도시공사 등은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법

을 찾고 한발 빠른 행정처리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시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산업단지 전·출입로 포장, 오수처리 방안 및 폐수처리장 조기 가동, 전기·통신시설 지원, 상수도 조 기 공급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건축 인허가 매뉴얼 제작·배포, 임

시도로 개통 등을 우선 추진하고 상수도는 11월 말이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폐수처리장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협력으로 내년 4월이면 비상운전을 시작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전곡산단 전담 직원 배치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전기통신 시설도 조기 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단 분양홍보관에서 가진 입주계약 11개 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이 부시장은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 전력투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탁월한 교통 인프라와 서해안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기반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곡산단은 시의 적극 지원으로 분양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0일 화성도시공사는 남양공업(주)과 협력업체인 흥진기업(주)과 3만4천581㎡ 규모의 부지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화성=조홍복 기자 hbj@kh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평택해양경찰서가 29일 경비정으로 대항선박 퇴선 등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제공)

단체 주장 담긴 불법현수막 빼곡 공공·형평성 이유로 손도 못댄다

이천 도로주변 점령 눈살 시 “도시경관 개선할 것”

이천 도심 주요 도로변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수개월째 난립하고 있어 관공이천 이미지 구현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도시경관을 해치는 도심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 철거운동 등 불법 광고물 대응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담당자 연합회 등을 개최,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사 앞 도로변과 이전의 입구인 서이천나들목 부근 등에 수개월 전부터 변전소, 철도역사, 특전사 이전과 관련된 불법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공공성격이라는 이유로 주민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 건립 반대, ○○입점 반대 등 불법 현수막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로 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모(49·성남시 단대동)씨는 “쌀축제를 보기 위해 이천을 찾았는데, 주차를 위해 시청으로 오는 길에 불법 현수막이 많아 어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대부분이 단체의 주장을 담은 내용으로, 일부 공공성격의 현수막이라도 그대로 불법인데...”라며 혀를 찼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공성격을 띤 현수막일지라도 불법 현수막은 게척하지 말아야 하고, 또 철거 등 강제 집행하는 것이 맞지만 쉽게 철거하기 어렵다”며 “불법 현수막을 자제히 파악, 철거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hihoilbo.co.kr

미래 첨단기술 의정부에 모인다

내달 1~2일 과학축전

의정부시가 의정부과학축제의 규모를 키워 경기도와 함께 경기지역의 최대 과학축제인 ‘2014 경기·의정부 과학축전’을 개최한다. 내달 1~2일 양일간 신한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이번 과학축전은 ‘과학+상상으로 이뤄진 세상’을 주제로 70여 개의 체험·전시부스가 설치돼 기초과학, 첨단과학, 융합과학, 환경과학 등 미래를 선도할 첨단과학 분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주요 행사로 국내외 뇌공학 분야의 저명한 과학자인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뇌공학은 로보캅을 만들 수 있을까?’ 강연을 비롯해 과

학 미술쇼, 로봇 문화공연, 과학실험을 통해 과학 원리를 배우는 가족과학체험버스, 3D프린터, 미래로봇기술, 환경과학자 등의 미래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이동 천체관측 차량인 루체리움 스타카를 활용해 낮에 천체를 관측하고, 교육 영상물도 상영하는 천문우주부스 등 다채로운 과학 전시 및 체험행사가 열린다. 특히 행사 첫날인 1일 오후 6시부터 중랑천 주변 생활체육시설에서 가을 별자리 및 주요 천체(달, 알비레오, 데네브, 베가, 성단) 등을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국립보현산 천문대 망원경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아간전문공기관측행사 ‘별 보러 올 그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의정부=김주성 기자 kjs@khihoilbo.co.kr

차의과학대 학생팀, 청년 보금자리 ‘행복주택’ 홍보 박차

CHA의과학대학교 학생팀인 ‘갓차(GotCHA)’가 청년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행복주택’ 정책 홍보활동을 경기북부지역에서 전개한다. CHA의과학대학교 의료홍보영상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갓차는 지난 9월 홍익대학교와 문화체육관광부·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아이디어 빅 리그’의 본선을 통과했다. 전국 26개 팀 중 본선을 통과한 8개 팀은 문제부가 지원하는 100만원 예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실제

청년지원정책 홍보를 현장에서 전개한다. 이를 위해 갓차는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의정부·일산·포천 등지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고 있는 ‘행복주택’ 정책을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갓차의 ‘행복주택’ 정책 홍보활동은 페이스북(facebook.com/gothappyhous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hihoilbo.co.kr

정왕동 2123-2 오피스텔 분양공고

☐ 본 분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시흥시 건축과 『2014-건축과-분양신고-3호(2014.10.29)』로 분양승인

■ 경기도 시흥시 2013-건축과-신축허가-143호(2013.11.11)로 건축허가 득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3-2

■ 대지면적 : 1,588㎡/30,971.50㎡의 지분 30971.5분의 1588.00

■ 연 면 적 : 전체 9,180.821㎡ 중 비주거용오피스텔 5,867.372㎡, 근린생활시설 1,637.059㎡, 기숙사 1,676.39 ㎡)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상 5층 ~ 지상 11층 비주거용오피스텔 126실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상 5층~11층 비주거용오피스텔, 지상1~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4층 기숙사, 지하1층~2층 주차장

■ 공급대상 및 공급면적

(단위 : ㎡)

구분		세대별 공급면적				대지 지분	공급 세대
		전용면적	공용면적	주차면적	계약면적		
비주거용 오피스텔	"A" type	28.58	22.365	11.100	62.045	4.589	7세대
	"B" type	22.52	17.622	8.745	48.887	14.465	28세대
	"C" type	21.38	16.731	8.304	46.415	3.433	7세대
	"D" type	19.33	15.126	7.508	41.964	3.104	7세대
	"E" type	19.55	15.299	7.594	42.443	18.836	42세대
	"F" type	19.20	15.024	7.458	41.682	3.083	7세대
	"G" type	22.61	17.693	8.782	49.085	10.892	21세대
	"H" type	22.40	17.528	8.700	48.628	3.597	7세대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구 분		형별 (㎡)	층구분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납부일정						
								계약금	중도금				전금	
									10%	1차(20%)	2차(10%)	3차(10%)		4차(10%)
비주거용 오피스텔	"A" type	62.045	5~11	109,669	15,740	85,390	8,539	10,966	21,934	10,966	10,966	10,966	43,871	
	"B" type	48.887		86,408	12,400	67,280	6,728	8,640	17,282	8,640	8,640	8,640	34,566	
	"C" type	46.415		82,038	11,770	63,880	6,388	8,203	16,408	8,203	8,203	8,203	32,818	
	"D" type	41.964		74,175	10,650	57,750	5,775	7,417	14,835	7,417	7,417	7,417	29,672	
	"E" type	42.443		75,021	10,770	58,410	5,841	7,502	15,004	7,502	7,502	7,502	30,009	
	"F" type	41.682		73,677	10,570	57,370	5,737	7,367	14,735	7,367	7,367	7,367	29,474	
	"G" type	49.085		86,755	12,450	67,550	6,755	8,675	17,351	8,675	8,675	8,675	34,704	
	"H" type	48.628		85,963	12,340	66,930	6,693	8,596	17,193	8,596	8,596	8,596	34,386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당사가 적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각 형별로 분양가가 다르므로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등록세 통합)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지하층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유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주차장 및 지하층 기계/전기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자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한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2회 이 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이후 납부, 다만 건축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퍼센트는 입주일에, 나머지 50퍼센트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분양공고는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 청약 신청 자격 및 일정

- 청약신청 자격 : 모집 공고일(2014. 10. 30)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국내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 거주 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접수	청약양소	추첨 및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비 고
2014.10.30~31 (10:00~18:00)	분양사무실	2014.11.01 (09:00~10:00)	2014.11.02 (10:00~18:00)	청약은 방문접수만 받으며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

납부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청약신청금	비 고
우리은행	1005-202-594230	(주)코람코자산신탁	금일백만원정	

- 분양사무실에서는 청약신청금을 일체 수납하지 않으며, 청약신청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정상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타행송금은 가능하고, 입금 후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입금증을 제출하고 청약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세대로 제한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통호수 결정방법 : 추첨에 의해 당첨자 선정, 층/호수는 무작위 결정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청약금 환불 : 낙첨자 전원 무통장입금 / 분양계약 체결 개시 이후 주1회(청약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당첨자의 청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합니다)

■ 청약신청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서 (배우자 포함)	· 청약신청서(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본인 또는 배우자 인장 · 본인확인증표 : 신분증,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 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청약신청금 입금증, 낙첨시 청약신청금 환불 통장사본(청약신청자 명의), 청약신청금 반환요청서(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법인 신청서	· 청약신청서(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약신청금 입금증, 낙첨시 청약신청금 환불 통장사본(청약신청자 명의), 청약신청금 반환요청서(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 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함 － 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분양계약(청약신청 등 포함) 체결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분양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위임장식은 신청접수장소 비치) － 분양계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분양계약 체결

-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납부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우리은행	1005-602-582317	(주)코람코자산신탁	

- 분양사무실에서는 공급금액을 일체 수납하지 않으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정상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타행송금은 가능하고, 입금 후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입금증을 제출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서 (배우자 포함)	· 분양계약서(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본인 또는 배우자 인장 · 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분양계약(청약신청 등 포함) 체결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 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분양계약금 납입영수증(무통장입금)
법인 신청서	· 분양계약서(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분양계약금 납입영수증(무통장입금)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 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함 － 분양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 계약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분양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위임장식은 신청접수장소 비치) － 분양계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시 필요한 상기 제 증명 서류는 계약기준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으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 시 제출한 서류가 위법적으로 발급되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및 계약 부적격자로 판명된 계약은 무효처리 되며, 이 경우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및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이후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계약)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없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제6조제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급대금은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일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미계약세대 발생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합니다.

■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준공예정일 : 2015년 4월 30일

- 입주예정일 : 2015년 5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천재지변, 하절기/동절기 기상의 영향으로 야기되는 공사기간 연장,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인허가 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예정일은 추후별도 통보 예정)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자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오피스텔은 1인 1건에 한하여 개별 LTV 분양가의 50% 범위 내에서 취급하며, 2건 이상의 임대사업 목적의 계약자는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 취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시행사부담으로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나 금융기관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11월 10일 이후 계약자의 중도금은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11조2항2호에 따라 1개월이 지난 이후 시행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대출 실행 또는 중도금 납부하기로 한다.

■ 분양관리신탁 관련사항

- 본 공급대상물은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축주 대성중공업(주)이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주)코람코자산신탁과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코람코자산신탁은 본 사업에서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업무만을 담당하고 그 외 공급대상물의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주)코람코자산신탁이 공급목적물의 소유권을 계약자에게 직접 이전할 때도 동일합니다.

1. 분양계약과 관련한 공금자, 매도인 또는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사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분양(매매)목적물의 하자 및 분양계약에 관한 법적 책임은 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 분양사무실 위치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3-2 대성중공업(주) 현장사무소

전화 : 031-497-3550

■ 유의사항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물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산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 방법] 주택형별 면적(㎡)² ×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²) ÷ 3.3058
- 건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철거할 수 있습니다. 단, 철거 시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보관할 예정입니다.
- 각종 홍보·인쇄물(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건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등) 및 각종 분양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정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포장,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는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및 재질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변경)도서에 준합니다.
- 본 사업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자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방상 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처리 절차 또는 실측청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입주금 납입시 상호 정산합니다. 다만, 분양면적 및 공유지분 면적 증감이 2%미만일 때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인접대지의 담장 등 구조물의 일부가 본 사업부지내로 축조된 사항일 수 있습니다.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부가구(불박이장, 주방가구) 설치부위의 비도출면(천장, 벽체, 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체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체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계법령 따라 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조정 및 세부 사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체의 품질, 품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건축허가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건본주택기준으로 건축허가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이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시 분양단지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의 내부시설물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정으로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차량 전조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소음 및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공간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D/A, TOP LIGHT, 상가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펌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 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내용은 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시 각종 상행위(인데이터,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동별·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건본주택 및 공급자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인 안내

구 분	업 제 명	연 락 처	
건축주 겸 위탁자	대성중공업(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6 (중동)	T 031)497-3550	F 031)499-3552
수탁자	(주)코람코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 19F)	T 02)787-0219	F 02)787-0121
시공사	온성산업(주) 경기 시흥시 정왕동 1237-3 (사회공단 1라 703)	T 031)499-0181	F 031)499-0186
설계사	건축사사무소 준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33-5 로얄퍼스트빌 209호)	T 031)432-6422	F 031)432-6423
감리사(건축/대표감리)	건축사사무소 준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33-5 로얄퍼스트빌 209호)	T 031)432-6422	F 031)432-6423
분양대행사	대성중공업(주) (경기 시흥시 정왕동 2123-2)	T 031)497-3550	F 031)499-3552

열린광장

안순기



“통계조사를 왜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인천의 역사(歷史)를 새로 작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상대에게 7만2천604와 289만7천18이란 숫자의 의미에 대해 묻고 한다.

우리 지역과 숫자 7만2천604와 289만7천18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앞 숫자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 통계포털(KOSIS)에서 찾은 ‘1914년 인천인구’이며, 뒷 숫자는 ‘2014년 9월 말 기준’의 우리 지역 주민등록 인구이다. 지난 1세기 동안 통계로 본 인천시 모습은 인구로는 40배 정도, 그리고 가구 수는 65배 이상 증가돼 경이(驚異)로운 도약과 성장의 시기였음을 통계로 알릴 줄 수 있으니 통계(統計)는 역사를 새로 만드는 일

통계는 역사를 만드는 소중한 일

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또한 지금 인천은 다음 100년을 위해 동북아 비즈니스 핵심도시로 발전하고자 영종·송도·청라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첨단 인프라를 확충하고 친화적 생활 여건을 갖추는 등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IFEZ(인천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통계 분석 자료를 보면 IFEZ 내 인구는 인천시 인구의 6.7%이며, 2009년 6만5천597명→2013년 19만5천190명으로 197.6%(매년 2만6천 명) 증가했다. 그 중 30~40대는 총인구의 39.2%이고 0~19세는 28.7%를 차지하고 있으니

IFEZ가 갖는 도시 활력과 개발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통계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유추하는 데 널리 활용하고 있다 하겠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통계에 관한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 통계 작성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했다면 지금은 통계 작성·가공 분석·통계 활용·정보서비스까지로 통계 영역 확대와 함께 빅데이터·융합통계 등을 통해 다양한 통계가 만들어지고 있어 우리가 생활하면서 통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로 생활 속 깊숙이 그리고 곳곳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 ‘경인지방통계청 인천사무소’에서는 월간 조사 21종을 포함해 총 37종의 국가통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중 고용동향·산업동향·물가동향 등 3종의 조사 결과는 매월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 주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통계 홍보 활동으로 통계를 대하는 시민 반응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일부에서는 ‘특정 그룹에서만 사용하는 정보이고, 그저 어렵고 복잡한 숫자에 불과하고, 특별히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이 지역 통계 기관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 다소 희망적인 것은 통계청의 KOSIS 이용자와 국가 통계에 관심을 갖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어 머지않아 통계에 대한 시민의식도 크게 바뀌리라 기대하고 있다.

2015년은 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예정돼 있다. 그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월 3일~17일 ‘전국의 가구주택 기초조사’가 실시된다. 앞서 말씀드리 대로 통계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만들고 미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적 사업임을 널리 이해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

〈경인지방통계청 인천사무소장〉



버스 불법 감차

“아, 버스가 왜 이리 안 오지? 정차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오늘도 버스 운행을 안 하나?”

경기도에서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면 한 번쯤 받을 동등거리며 해 복잡한 불만소라다.

그 원인이 도내 버스회사들 사이에 적자 노선 운행 기피에 따른 불법 감차 탓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이런 불법 영업 행태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니 더욱 그렇다. 실제로 경기도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지난 5년간 시내 버스 불법 감차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말이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버스회사들의 불법 감차 건수는 총 2천280건에 과징금만도 36억3천만 원에 달했다. 더욱이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에만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대중 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불법 감차 현황을 보면 997건(과징금 15억9천만 원)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8건(과징금 5억1천만 원)보다 건수로는 3.7배가 늘어났고 과징금도 3.1배가 급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도내 일선 시·군별 버스회사들의 불법 감차 현황을 보면 파주시가 1천56건(과징금 14억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 405건(과징금 9억2천만 원), 수원시 305건(과징금 6억9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불법 감차를 강행한 운수 업체로는 파주시 소재 S여객(총 900건, 과징금 13억4천만 원)이었다.

이처럼 불법 감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 버스회사들이 차라리 불법 감차로 당국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대중 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1천 200만 도민들의 발목을 파곤해야 하겠는가?

하루하루 경기도가 도내의 모든 버스 운행 간격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과 불합리한 노선 통폐합 및 정상 운행에 따른 버스회사에 적극적인 손실을 보전해 주는 등의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고양=조병국 기자〉

녹색경영산책

이경엽



제3의 인문과 자기경영

우리 연구원이 진행하는 경기·인천 지역 CEO를 위한 아카데미가 어느덧 6기에 접어들었다. 다양한 과제의 연구와 정보 공유, 공적 토론의 장을 마련해 가며 사회적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고견과 자문을 받아 그에 대한 아름다운 해결 방안이나 따뜻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특징이 넘도 없고 그러한 편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다만 사회적 과제나 정신 자산의 진화에 대해 항상 묻고 답하며 작지만 올바른 실천가치를 기반 삼고자 하는 풀뿌리적 목적의식은 뚜렷하다. 아마 일관된 지향점이 지식산업과 지성센터 내지는 새로운 정신문명의 발원지가 되고 싶다는 원대한 비전을 가졌다는 점이다.

공자의 제자 자장(子張)이 어느 날 스승에게 리더의 정신을 얻고자 질문을 했다. “어찌하면 올바른 처신으로 주변에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은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또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것은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즉,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좋은 평판은 저절로 생겨나 인정을 받게 된다.” 남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 많은 재산과 훌륭한 역량, 명예, 지위만으로 내로라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오늘날 사회적 리더의 평가 잣대에서 재무적 자산이나 역량 발휘는 기본적인 개인별 자산이다. 그 위에 사회 발전 전략 마인드와 리더십에 대한 독특한 감성이 없으면 승부를 걸기가 힘들다. 여기서 말하는 감성은 계량화된 숫자나 논리보다 훨씬 강하고 진할 수 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리더의 입장에서 감정상태는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 개인이 조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근거는 이성과 논리보다 이러한 자기경영에 기초한 감성 또는 감정이다. 감정을 통한 감성리더십은 조직 내부의 소통과 결합, 추진력과 열정을 좌우한다. 나아가 외부 관계자와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가른다. 그래서 리더들의 자기인식과 감정입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리더가 되기 위한 자기경영은 우선 그러한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장점은 지기되 혁신적 발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 ▶공동체 운용에 대한 전략 기획의 역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이다. 사회적 리더로서 이 세 가지 역할에 집중할 때 자기경영(Self lead)에 대한 방향성이 확립된다.

자기경영은 사회 발전에 따른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이 속한 조직과 주변 사람들의 가치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 개념의 자아실현 방법이다. 조직이 브랜드를 만들고 키워가듯 개인도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실천 방법으로 ‘자기경영’을 선택해야 한다. 자기경영은 자기개발이나 자기관리 개념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말한다. 건강한 정신자산을 바탕으로 한 감정관리는 자기경영의 가장 기초적인 항목인 것이다. 감정을 통제하는 감성리더십을 키워야 제대로 된 자기경영이 가능하다. 사회적 시스템, 법규 같은 정해진 틀 속에서의 리드도 중요하지만 정작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의 감성 리더십을 먼저 고려한 후 자기경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개발이 주어진 틀 안에서의 능력 개발이라면 자기경영은 목표와 방법부터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자기경영의 시작은 내가 늘 주장하는 ‘제1의 인문인 세상과 역사 속에서의 지혜’와 ‘제2의 인문인 그것에 대한 배움’, ‘제3의 인문인 배움에서 비롯된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제3의 인문’ 실천에 대한 가치는 나와 내가 아닌 제3자의 시각으로 진입장벽 없는 공간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내 자신의 현재 상태와 지위, 경쟁력, 미래적 잠재능력, 인생목표 등을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자기경영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정확히 측정하고 자기경영에 돌입해야 제대로 된 인문성으로의 이어집이 가능하다. 나눔과 배려, 도전의 실천 개념 ‘제3의 인문’으로 자기경영에 적극 나서야 할 시대가 왔다. 〈서울글로벌녹색경영연구원 교수 /기획본부장〉

기호일보 www.kihoilbo.co.kr

등록번호 가-61-알간
1988년 7월 20일 창간

회장·발행인 서강훈 / 편집·인쇄인 한창원 / 편집국장 전기식 경기본사 편집국장 정훈영			
인천본사 032-761-0001 ㉠ 032-761-0015 / 인천시 남구 인종로5 정산빌딩 9층 경기본사 031-898-6767~8 ㉠ 031-898-6769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29 연합뉴스 빌딩 4층 경기북부본사 031-872-2990 ㉠ 031-872-2991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9번길 관건축 3층			
구독신청 032-761-0007	편집국 팩스	032-761-0011	전산실 032-761-0009
판매국 032-761-0008	경영·사회부	032-761-0004	제판부 032-761-0013
보급문의 032-761-0002	문화·체육부	032-761-0005	출판부 032-761-0008
	편집부	032-761-0006	포토기호 032-761-0001
검 단 032-563-0022	중 구 032-772-4909	부 천 010-5356-8211	신 갈 031-285-2283
계 앙 032-547-5947	강 화 010-3330-5204	서 울 02-313-5962	처 인 031-333-1112
남 구 032-882-2547	가 평 031-582-0478	성 남 031-757-8948	의정부 031-845-4200
남 동 032-421-1966	고 양 031-962-5360	수 원 011-242-6004	이 천 031-634-3312
동 구 032-764-2775	인양·과천 010-6354-3259	시 흥 010-3218-8724	파 주 031-941-4513
부 평 032-526-9400	광 명 031-897-8283	안 산 010-5313-5329	평 택 031-653-3132
석 남 032-576-4191	광 주 010-5204-3470	안 성 031-675-2615	포 천 031-535-5806
송 도 032-831-0797	구 리 010-8212-0343	양 주 031-845-4200	하 남 031-793-4142
연 수 032-811-6911	군포·의왕 031-394-0446	양 평 010-8916-2106	발 안 031-352-5265
연 안 032-887-7355	김 포 031-997-3030	여 주 031-885-3627	봉 답 031-297-8086
연 회 032-561-4189	남양주 031-511-4434	연 천 031-834-1307	화 성 010-9274-3466
영 중 032-743-2990	동두천 031-865-2557	오 산 010-9274-3466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외부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호 漢字成語

萬事休矣(만사휴의)

萬일만만/萬일사/休矣/휴의/조사의

모든 일이 끝났구나라는 뜻으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음을 의미한다. 당나라가 망한 후 중국에는 5대10국(五代十國)이 있었다. 중원에서 흥망성쇠한 후량(後梁), 후당(後唐), 후진(後晉), 후한(後漢), 후주(後周)의 다섯 왕조를 5대라 말하고, 지방 쪽에서 흥했다 망한 전촉(前蜀), 오(吳), 남한(南漢), 형남(南南), 오월(吳越), 조(楚), 민(閩), 남당(南唐), 후촉(後蜀), 북한(北漢) 등을 10국이라 했다. 이 중 형남은 고계흥에 의해 세워졌는데, 그가 당 말에 형남 절도사로 파견됐다가 거기서 나라를 세운 것이 형남이다. 고계흥의 아들 중회(從洵)가 다스릴 때, 그에게는 보용(保融), 보옥(保勳)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보옥이 어렸을 때 너무 버릇없는 것을 보고 웃어른이 따끔하게 혼을 내며 화를 냈는데, 보옥은 그저 그를 보고 웃기만 하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는 끝났다(萬事休矣).” 보옥이 왕위에 오른 후 오래지 않아 망했다. 〈鹿鳴〉

비상장 주식 사정상 급매

1. 매 각 대 상 : (주)드림로봇 발행주식(48,000주)
2. 매각 희망가 : 52,000원 정도
(2014.1.1. 현재 세법에 의한 평가액)
3. 매 각 방 식 :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매각
(최고가부터 보유물량 순차적 매각)
4. 인수의향서 등 접수
① 접수기간 : 2014년 11월 3일(월) 15:00까지(도착기준)
② 접수장소 : 인천 남구 소성로 175 16 (신우빌딩 3층)
③ 제출서류 : 인수의향서, 비밀유지확인서 등
5. 인수의향서 접수 이후 절차
① 입찰대상자 선정 : 인수의향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후 입찰대상자에 한하여 입찰서를 개별적으로 송부하는 등의 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② 입찰장소 및 일시, 입찰보증금, 낙찰자결정방법 등 입찰대상자 선정 이후의 상세 일정은 입찰대상자에게 제공
6. 기타사항
① 본 주식 매각과 관련한 문의사항 및 관련 양식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매각 주관사인 유니즈경영연구원 ☎ 032-886-4212)으로 문의
② 인수의향서 등 본건 주식 매각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상기 접수 기간 내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0303-0958-4595)로 제출하여야 함
③ 접수된 서류 일체는 유니즈경영연구원의 동의가 없는 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④ 당사는 매각 대상 주식 발행사인 주식회사 드림로봇의 분식결산 여부 등 회사의 제반 사정에 대한 어떠한 행태의 책임도 지지 않으며, 평가기준일 이후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변동내역은 당사가 파악할 수 없음
⑤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014년 10월 30일
(주)드림로봇 주식 매각 주관사
(유)유니즈경영연구원

의료광고심의필 제-증-13715



**수술없는
목·허리 디스크치료**
중화한의원이 책임지겠습니다.

수술만 한다고 치료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근육과 염증 신경과 혈관 척추의 배열상태
힘의 재건 모든 것이 완벽해져야 합니다.
저희 중화 한의원에서는 완벽한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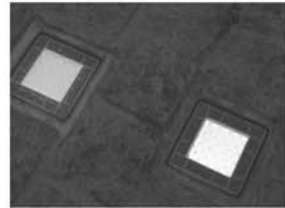
032-435-1599
032-441-8883

인천 석바위 부녀복지회관(옆)

아름다운 도로!
밝은 도로, 안전한 도로!
새 시대의 도로를 만들어 갑니다



코스모스환보의 태양광에너지 기술은 깨끗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입니다



CosmosHuanbo
코스모스환보

태양광 정원등의 원리

계절마다 장차되어 있는 태양전지판이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며, 어두워지면 광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점등됩니다.

기대효과

- Ⅰ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 Ⅱ 전기배선이 필요없어 시공비가 거의 안듭니다.
- Ⅲ 설치가 용이하며 전구수명은 반영구적입니다.
- Ⅳ 아름다운 조명으로 조경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 Ⅴ 상시 불이 들어오므로 방범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87-7 부천대우테크노파크 A동 402호
TEL. 032)670-8998 (826 8) FA X. 670-8368
E-mail. momopop6555@hotmail.com



‘헬로 이방인’ 새 카드 줄리엔 강 합류·콘셉트 변화

문화재 보고 여행하는 방식으로 전환
유 PD “새 멤버에 주도적 역할 기대”

“요즘 외국인들이 (방송가) ‘대세’라고 하는데 정말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그룹 M.I.B의 강남) 일본 출신 강남의 말처럼 외국인들이 뚜렷한 존재감을 과 시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요즘 탄력을 받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15분께 방송되는 MBC 새 예능 ‘헬로! 이방인’ 또한 10명이 넘는 이방인들이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우는 프로그램이다.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헬로! 이방인’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유호철 PD는 “우리의 재미 요소는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에 서투른 모습, 또 한편으로는 한국문화를 정말 잘 이해하는 모습을 섞어서 보여 주는 데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서는 어느새 대한민국 독거 남성의 아

이론으로 떠오른 배우 김광규(46)가 게스트하우스 주인을 맡아 역시 홀로 사는 이방인들과 다양한 추억을 쌓는다. 이곳을 찾는 이방인들은 한국생활 5년차에 요즘 에능가에서 총횡무진인 강남(27),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으로 한국생활 3년차에 놀라운 식성을 가진 프랭크(23), 한국생활 5년차의 악동인 미국 출신 데이브(25) 등 주로 일반인에 가까운 인물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이방인”이라고 소개한 김광규는 “정말 진행을 하면 할수록 유재석이나 전원무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라고 느낀다. 체력 안배를 잘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막내이지만 리비아에서 한국으로 온 지 벌써 14년째인 아미라(22)는 “방송에 나온 뒤 그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지난달 주처 파일럿(시범제작)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헬로! 이방인’은 정규 편성 경쟁에서 살아남았지

만 정규 편성 이후 시청률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요즘 예능 ‘대세’로 평가받는 강남과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일본 여배우 후지이 미나(26)가 투입됐음에도 지난 16일 1회는 1.9%(이하 닐스코리아 기준), 23일 2회는 2.5%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김광규는 이에 대해 “1화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와서 공황에 빠졌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전진난만한 표정의 강남은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어서 무척 편안하다”며 김광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유 PD는 “아직 출연하는 친구들의 캐릭터가 형성되지 않아서 산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점점 그 역할과 캐릭터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앞으로 멤버들이 생활권역인 서울을 떠나 전국 곳곳을 여행하는 모습을 담을 예정이다. 한국 문화재를 직접 보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다양한 지방 음식을 맛보는 식이다. “게스트하우스는 여행지 어느 곳이나 가면 있잖



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프로그램은 고정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데 좀 더 의미를 둔다.”(유호철 PD) 이날 간담회에는 새 멤버로 합류한 줄리엔 강도 참석했다. 줄리엔 강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후 처음 언론 앞에 등장한 소감이 어떤가”라는 질문에 “그냥 그 사건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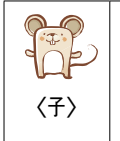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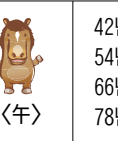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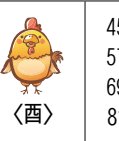
거이니 앞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면서 즐겁게 찍고 싶다”고 밝혔다. 유 PD는 그의 영입 배경에 대해 “다른 출연진들이 사실상 일반인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위밍업이 될 뻔 상태”라며 “이미 연에 활동을 한 줄리엔 강의 경험이 도움되리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문의 OBS(032-670-5130) KBS(02-781-1800) MBC(02-780-0015) SBS(02-2113-3190) EBS(02-526-200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1	KBS 2	MBC	SBS	OBS	EBS
[5]	5:00 KBS 뉴스 5: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6:00 튜트생활체조 6:0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 7:00 2014 대한민국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9:40 여유만만 10:50 지구촌 뉴스 11:15 사랑의 가족 11:45 인간극장 스페셜	5:00 MBC 뉴스 5:10 우리는 한국인 6:00 MBC 뉴스투데이 (1~2부) 7: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 생활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1:00 주말 드라마 (장미빛 연인들)	5:00 SBS 뉴스 5:10 2014년 510 6:00 모닝와이드 (1~3부) 8: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10 좋은 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생활의 달인 스페셜	6:00 OBS 뉴스 6:15 다큐월드 (세계 약초 기행) 6:45 OBS 뉴스 7:00 TV 주치의 7:15 독특한 연예 뉴스 8:00 건강요리대백과 (마법의 식탁) 8:30 체인지 라이프 (닥터&스타) 9:30 TV 주치의 9:45 OBS 뉴스 10:05 드라마 극장 (신드롬) 11:15 Music & Movie 11: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5:00 World News Review 40 만나고 싶습니다 6:10 세계의 눈 7:00 시계마을 투키톡 30 책과 땅 45 로보가 놀리 8:00 당동당 유지원 35 방귀대장 뽕뽕이 50 How - 만들어 볼까요 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40 생활백과 10:10 세계 건문록 아틀라스 4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0]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1:20 튜트생활체조 11:25 청포도 11: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12]	12:00 KBS 뉴스12 12:55 바른말 고운말 1:00 소중한 나눔 이야기 1:50 제95회 전국 체육대회 3:00 KBS 뉴스 3:10 제95회 전국 체육대회 4:00 시사진단 4:55 튜트생활체조 5:00 KBS 뉴스 5:20 동물의 세계 5:40 세상은 넓다	12:55 제13회 밀양 아리랑가요제 2:00 KBS 뉴스 타임 2:10 생활의 발견 3:00 키오카 3:3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0 TV 유치원 콩다콩 4:30 마법 전지문 5:00 비타민	12:00 MBC 정오 뉴스 12:2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50 제7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3:00 MBC 경제 뉴스 3:10 보글 쿡 원정대 3:4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4:10 내꺼야 폭죽 4: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5: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뉴스 12:4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55 날씨와 생활 2:00 자기가 - 백년손님 3:00 SBS 뉴스 3:10 SBS 이슈 인사이트 4:00 최강! 탐 플레이트 4:30 꾸러기 탐구생활 5:00 SBS 뉴스퍼레이드 5: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2:0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25 글로벌 비전 2:05 OBS 에니월드(떨기가 좋아) 2:45 OBS 뉴스 3:05 꾸러기TV 3:45 인생열전 (살 맛나는 세상) 4:45 OBS 뉴스 & 이슈 5:45 드라마 극장 (신드롬)	12:00 EBS 정오 뉴스 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10 부모 광장 50 뽕뽕뽕 뽕리 2:00 시계마을 투키톡 45 미앤마이로봇 3:30 정글북 4:00 당동당 유지원 45 How - 만들어 볼까요 5:00 방귀대장 뽕뽕이 30 로보가 놀리 45 뽕뽕뽕 뽕리로
[4]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30 한국의 밤 8:25 일일 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6:00 2014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 (넥센 : LG)	6:2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7:15 일일 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7:55 MBC 뉴스데스크 8:55 일일 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6:00 생방송 투데이 7:20 일일 드라마 (사랑만 할래) 8:00 SBS 8 뉴스 8: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6:55 미래로의 도전 세계의 하이테크 7:45 OBS 뉴스 M 8:25 오늘의 월드 뉴스 8:55 독특한 연예 뉴스	
[6]	9:00 KBS 뉴스9 10:00 특별기획 (코리아 지오그래픽) 10:50 숲 더 11:00 KBS 뉴스라인 11:40 특집 (국보 가요축제) 1:10 생활의 발견 2:00 KBS 결전선 (결혼해주세요) 3:00 바른말 고운말 3:05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 3:45 KBS 중계식	10:00 수목 드라마 (아이언 맨) 11:10 해피 투게더 12:30 스포츠 하이лай트 12:45 다큐멘터리 3일 1:35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	9:30 리얼스토리 눈 10:00 수목 미니시리즈 (내 생애 봄날) 11:15 헬로! 이방인 12:35 MBC 뉴스 24 12:55 스포츠 다이리 1:10 MBC 다큐프라임 2:05 스포츠 와이드 4:05 연기가 돌아왔다	10:00 드라마 스페셜 (내년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11:15 자기가 - 백년손님 12:35 나이트 라인 1:15 풋볼 매거진 골! 2:05 웃음을 찾는 사람들 3:20 로드 투 평행	9:45 와이드 ASIA 10:40 OBS 京인 뉴라인 11:05 경찰 25시 12:05 꿈꾸는 U 1:05 Music & Movie 1:35 인생열전 (살 맛나는 세상)	9:30 한국기행 9: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10:45 다문화 고부 연전 11:35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2: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9]						

	중합편성제널·케이	중합편성제널·케이	중합편성제널·케이
중	◇ JTBC 07:20 JTBC NEWS 아침 & 10:30 님과 함께 14:45 3시 상황실 사건 반장 17:00 5시 정치부 회의 19:55 JTBC 뉴스룸 23:00 썰전	◇ TV조선 06:50 TV조선 뉴스 7 09:40 김광일의 신통방통 14:15 돌아온 저격수다 16:30 장성민의 시사랭크 21:40 TV조선 뉴스쇼 '판' 23:00 내 몸 사용 설명서	◇ 채널A 08:10 2014년 A 10:10 시사 인사이트 14:40 직언직설 16:55 제돌이 21:30 채널A 종합뉴스 23:00 웰컴 투 시월드
드	◇ KBS드라마 06:40 빠꾸기 동지 08:40 가족끼리 왜 이래 11:20 TV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13:20 슈퍼맨이 돌아왔다 18:00 고양이는 있다 22:00 슈퍼맨이 돌아왔다 베스트	◇ MBC드라마넷 05:00 상도 08:30 장미빛 연인들 12:30 압구정 백야 16:30 모두 다 김치 18:00 소원을 말해봐 20:50 아빠! 어디가? 시즌2	◇ SBS플러스 04:30 게스트하우스 08:30 TV 동물농장 09:50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15:40 청담동 스캔들 17:50 사랑만 할래 19:20 자기가 백년손님
영	◇ OCN 10:50 CSI 시즌14 12:50 리셋 14:10 감기 16:40 밤의 여왕 19:00 잭 리전 21:30 나쁜 녀석들	◇ 채널CGV 09:00 마스터 로빈 쏘시기 11:00 스탠리의 도시락 13:00 워킹 포에버 15:10 마이웨이 18:20 스피드 레이서 22:00 엔드 오브 데이즈	◇ 스크린 11:30 베이트 14:00 정고 16:30 형거계명 : 판원의 불꽃 19:00 이리저리 21:00 S. W. A. 특수기동대 23:00 도미니언
연	◇ Mnet 08:00 M morning 11:00 Mnet Music Twit 15:30 Daily Music Talk 18:00 M COUNTDOWN 20:30 Live on M 23:00 MIX & MATCH	◇ 코미디TV 08:30 더프렌즈 in 타이완 11:05 TV 동물농장 14:05 무한도전 15:50 코미디 빅리그 17:25 아빠! 어디가? 21:00 진짜 사나이	◇ tvN 07:00 응답하라 1994 10:3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30 신시계 15:00 미생 20:50 한식대첩 시즌2 23:00 오로부터 출근
에	◇ KBS N 스포츠 16:50 2014/2015 V리그 (GS칼텍스·현대건설) 19:00 2014/2015 V리그 (현대캐피탈·LG손해보험) 23:00 2014 프로야구 (PO3, 넥센·LG, 잠실)	◇ MBC 스포츠플러스 12:30 2014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투데이 19:00 2014/2015 V리그 (KGC vs 오리온스, 안양) 21:30 2014 프로야구 (PO3, 넥센·LG, 잠실)	◇ SBS 스포츠 13:00 야구분석 2 (공포의 외인구단) 17:00 14-15 V리그 (현대캐피탈·LG손해보험) 18:45 14-15 V리그 (우리카드·한국전력)
스	◇ News Y 08:00 뉴스 다이제스트 10:40 맹찬형의 시사타치 12:40 뉴스현장 16:50 뉴스워치 22:25 글로벌 투데이	◇ YTN 06:58 뉴스 오늘 11:58 뉴스이슈 13:58 호준석의 뉴스 인 15:58 뉴스Q 17:58 이브닝 뉴스 21:52 뉴스나이트	◇ MTN 07:50 2014년 중시 Q 09:50 마켓 파워타임 13:10 오후의 투자전략 15:40 중독 히든타임 18:00 MTN 투데이 21:30 대학타임 930

오늘의 운세 10월 30일(음 9월 7일)

 36년생 48년생 60년생 72년생 〈子〉	현상유지에 힘쓸 것. 조용하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부모에게 좀 더 신경 쓸 것. 원망 듣거나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될 듯.	 39년생 51년생 63년생 75년생 〈卯〉	재물관리에 신경 쓸 것. 돈 버는 일에 전력으로 매달려라. 상대를 파악하고 거래를 준비하라. 복이 날지는 하루 보내겠다.	 42년생 54년생 66년생 78년생 〈午〉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난처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 재물 생기고 자손에 경사가 있겠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	 45년생 57년생 69년생 81년생 〈酉〉	여행이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져볼 것. 친한 사람에게 도움 받을 일 생기겠다. 의무를 이행하기에 분주하고 바쁘다. 주위에서 누가 돕고자 한다.	 37년생 49년생 61년생 73년생 〈丑〉	오늘은 융통성이 중요하다. 힘들더라도 노력하고 견디면 반드시 성과를 보겠다. 일부 전진을 위해 오늘은 꼭 쉬는 것이 좋겠다. 판단 착오로 남에게 큰 피해 줄 수도 있다.	 40년생 52년생 64년생 76년생 〈辰〉	옛 친구와 만난다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듯. 나서면 굶어 부스럼.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라. 작은 도움이라도 고맙게 받아들일 것.	 43년생 55년생 67년생 79년생 〈未〉	포용하는 자세로 상대를 이해할 것. 자기운전은 사고소 유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지나친 욕심 부리면 화를 부르고 과욕을 부리지 마라. 꽤 괜찮은 소득 있겠다.	 46년생 58년생 70년생 82년생 〈戌〉	친구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겠다. 정신적인 면에 중점을 둘 것. 한 우물만 파야 승산이 있다. 오래전 알던 반가운 사람을 우연히 만날 수 있다.	 38년생 50년생 62년생 74년생 〈寅〉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겠다. 투자하는 만큼 이익을 얻겠다. 논쟁거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예상치 못한 일로 다른 일까지 꼬여겠다.	 41년생 53년생 65년생 77년생 〈巳〉	긴장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연계 되는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라. 모든 일이 순조롭고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 있을 듯.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	 44년생 56년생 68년생 80년생 〈申〉	사소한 일이 크게 번져 구설이 생길 것이다. 중요한 일은 반드시 직접 처리할 것. 계약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살필 것. 함께 있으면 좋을 듯.	 47년생 59년생 71년생 83년생 〈亥〉	좋은 결실을 얻게 될 듯. 비상한 재주와 지혜가 있어 자주 성가하는 듯 하다가 성공이 좌절로 변해 마침내는 실패를 거듭해 곤혹을 치르게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이나 기업[법인]보유물건처분과 구입 및 개발상담

공장·물류·아파트 부지·토지개발 및 상가·아파트 분양 등 전문 컨설팅을 만나보세요!

공개매각

인천 연안부두 일반상업지역 5,950㎡(1,800평) 10,909㎡(3,300평) 준공업지역 16,529㎡(5,000평) 23,140㎡(7,000평) 일반공업지역 3,966㎡(1,200평)
인천 송도해안도로 자연녹지지역(잡종지) 33,058㎡(10,000평) 66,116㎡(20,000평) 99,174㎡(30,000평)
인천 동구 만석동 일반공업지역 21,487㎡(6,500평)
인천 남동구 그린벨트(잡종지) 46,281㎡(14,000평) 6차선도로점

※2009년도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집 무료 배포※
부동산 관계자라면 꼭 필요한 책 (306페이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않고 나만 갖고 물려 보고 싶은 책! 방문하시는 분에 한하여 300명에게 (1인1부)한정 배포합니다.

부동산신탁 전문회사
G:in ASSET
부동산의 랜드마크 **지인에셋**

(406-130)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835-1 지인빌딩
TEL (032)7777-100, 7777-200, 7777-300, 7777-400, 7777-500 FAX 032-7777-600

Book 프리뷰

알리바바 마윈의 12가지 인생강의

장편 / 매일경제신문 / 392쪽 / 1만6천 원

이주의 베스트셀러

제공: 교보문고 인천점 032-455-1000~4

- 1위 **여자 없는 남자들(일본소설)**
저자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340쪽. 1만3천800원.
- 2위 **비밀의 정원(컬러링북)**
저자 조해나 베스포드. 클 출판. 96쪽. 1만2천 원.
- 3위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스웨덴소설)**
저자 요나스 요나스. 열린책들. 508쪽. 1만3천800원.
- 4위 **21세기 자본(사회학일본)**
저자 토마 피케티. 글항아리 출판. 820쪽. 3만3천 원.
- 5위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프랑스소설)**
저자 파트릭 모디아노. 문학동네 출판. 277쪽. 1만 원.
- 6위 **나미야 점화점의 기적(일본소설)**
저자 하카리노 게이고. 문학동네. 456쪽. 1만4천800원.
- 7위 **싸드(한국소설)**
저자 김진명. 새문 출판. 350쪽. 1만4천200원.
- 8위 **메이즈 러너(영미소설)**
저자 제임스 데시너. 문학수첩. 542쪽. 1만4천800원.
- 9위 **어떤 하루(에세이)**
신준모 글 · 김진희 그림. 프롬북스. 168쪽. 1만3천800원.
- 10위 **스코치 트라이얼(영미소설)**
저자 제임스 데시너. 문학수첩. 512쪽. 1만4천800원.

돈도 백도 없던 남자, 세계 최고 부호가 되다



2014년 9월 19일 전세계 언론의 눈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쏠렸다.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상장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공모가는 주

당 68달러였으나 매수자가 모여들며 종가는 93.89달러로 38%나 폭등, 알리바바는 페이스북을 제치고 인터넷 기업 중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날 주식 못지않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알리바바의 창업주인 마윈 회장이었다. 작은 키에 못생긴 얼굴, 늘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에 어려운 거래는 없다”며 호언장담한 그의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비명문대를 졸업하고 자본금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했던 그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뤄 냈을까?

새 책 ‘알리바바 마윈의 12가지 인생 강의’는 마윈의 특별한 성공 비결을 담은 책이다. 특히 ‘성장, 끈기, 창업, 기회, 경영, 리더, 관리, 혁신, 경쟁, 전략, 투자, 생활’이라는 12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야기한다. 먼저 책의 첫 번째 파트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알리바바를 창업하던 초창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두 번째 파트는 알리바바의 경영이 궤도에 올랐던 때의

이야기와 마윈이 젊은이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를 담았다.

책을 통해 만나는 마윈은 학창시절 수학이 바둑이라 성적이 좋지 못했고, 고등학교도 낮춰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낙방해 고입재수생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때부터 영어공부를 위해 무작정 외국인에게 말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 회장 작은 키에 고등학교도 낙방

“세상에 어려운 거래는 없다” 꿈 이루기까지 인생 스토리

을 걸었고, 무협소설을 읽으며 불의에 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사범대학교 졸업 당시에는 유일하게 대학강사로 임용됐고, 번역역사를 창업해 분투하다 미국에서 납치·감금을 당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된 마윈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홍보회사와 정부기관을 거쳐 알리바바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무엇보다 그는 불확실한 기회가 진정한 기회임을 알았고, 사명감이 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믿었다.

기존의 마윈 관련 서적이 그의 현재 모습에만 초점을 맞춰 접근한 반면, 이 책은 마윈의 힘겨웠던 어린 시절부터 세계



최고 상거래회사에 선정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세세히 보여 준다는 특징을 지닌다. 여기에 BBC 인터뷰, 빌 클린턴, 손정의와의 특별한 일화를 실어 재미를 더했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는 지금, 마윈 회장의 이야기는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오늘 힘들고 내일 더 고통스러우면 모래에는 아름다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의 말에 귀 기울여 보자.

양수녀 기자 circus22@khihoilbo.co.kr

예술 담긴 세계 곳곳의 지붕



지붕
테리 피코 / 놀와 출판 / 184쪽 / 1만 원.

현대의 집은 아파트와 빌라가 대부분이라 지붕이라 불릴 만한 건축적 요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과거의 집, 즉 한옥은 지붕의 다양한 재료에 따라 초가집, 너와집, 기와집 등으로 불렸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다.

이 책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지붕, 그리고 사라져 가는 지붕을 영화·그림·문학에 담긴 예술적 이미지를 통해 발견하고 세상 곳곳의 지붕을 찾아 떠난다.

특히 저자는 영화 속 매력적인 지붕의 모습, 화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지붕, 지붕의 영광을 노래하는 문장과 시 등 지붕과 관련된 상징·신화·기술·문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아시아의 전통 가옥과 현대 주택, 아프리카의 전통 마을,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의 집, 미국의 평범한 교외주택 등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주거 양식과 지붕을 둘러보고 이를 비교해 본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



왜 회사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승진할까?
제프리 제임스 / 비즈니스북스 / 320쪽 / 1만3천500원.

험난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걸림돌을 비켜가는 48가지 비법.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 야근과 철야로 ‘월화수목금금금’을 보내는 대한민국 직장인들. 하지만 회사는 일반 열심히 한다고 승진시켜 주지 않는다.

새 책 ‘왜 회사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승진할까?’의 저자 제프리 제임스는 일반으로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상세하게 공개한다.

그는 험난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버리고, 적절한 사내 정치와 다각화된 인간관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직장, 직장에서 맡은 역할,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시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양수녀 기자 circus22@khihoilbo.co.kr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최초 공개

안성3·1운동기념관, 다음달 3일 특별전 개막
계몽운동·독립운동가 등 역사 되새기는 기회

안성3·1운동기념관의 첫 특별전 ‘대한민국 건국훈장전’이 ‘당신의 역사를 기억합니다’라는 부제로 다음 달 3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연다.

안성시와 광복회 안성시지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보훈처와 수원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안성 전역을 넘어 삼천리에 번진 독립운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첫 특별전의 테마인 대한민국 건국훈장은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에게 수여되고 있다.

건국훈장은 5등급으로 나뉘며 그 종류는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순이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서는 3·1운동의 꽃, 유관순 열사의 건국훈장이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삶을 독립운동에 바친 도산



안성3·1운동기념관은 다음 달 3일부터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에게 수여된 건국훈장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연다.

안창호, 대한제국에 망언을 쏟아부은 외교고문을 암살한 장인환, 의병장 의암 유인석의 후손이자 독립운동가인 유해동, 농촌계몽운동에 일생을 바친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의 건국훈장과 안성 3·1운동 독립유공자의 훈장도 전시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특별전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가을 정취

가 가득한 고성산 품 속 기념관으로 발걸음을 옮겨 어제의 역사를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스크린 속 이탈리아 문화와 만남

영화공간 주안-이탈치네마 내일까지 예술영화제 개최 세계 거장~신진 감독 소개

인천시 남구의 예술영화관 ‘영화공간 주안’은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이탈리아를 주제로 한 이탈리아문화원이 협력하는 ‘제6회 뉴이탈리아 예술영화제’를 진행한다.

영화공간 주안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행사인 뉴이탈리아 영화예술제는 영화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한국과의 문화 교류와 상호작용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복합문화예술제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이탈리아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감독들을 다루는 ‘회고전’부터 이탈리아 영화계의 거장을 소개하는 ‘포커스’, 주목받는 신진 감독을 소개하는 ‘뉴포커스’, 그리고 이탈리아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모은 ‘콤파넬이션’까지 모두 5개



아 예술제는 영화와 사진, 도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색다른 이탈리아의 얼굴을 만나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소개했다.

예술제는 영화공간 주안 3관과 걸쳐팩토리관에서 진행되며 초대관으로 관람 가능하다. 초대관은 영화공간 주안과 이탈치네마에서 배부 중이다.

문의:영화공간 주안 ☎032-427-6777, 이탈치네마 http://blog.naver.com/italcinema 양수녀 기자 circus22@khihoilbo.co.kr

귀로 듣는 문학... 더 큰 감동 나눔

도립극단 ‘소리책’ 제작 사업 창조적 사회공헌 공모 선정돼 탤런트 등 재능기부 규모 확장

경기도립극단과 (재)경기도시각장애인도서관이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 온 ‘소리책’ 제작사업이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의 ‘2014 창조적 사회공헌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 규모를 확장시킨다.

29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따르면 GKL 사회공헌재단은 관광·문화·체육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내외의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3월 설립됐다. 첫 사업으로 ‘2014 창조적 사회공헌사업’ 공모를 진행했고, 도문화의전당을 비롯해 24개 기관이 선정됐다.

‘소리책’은 도립극단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사회적 소통, 독서생활 활성화를 위해 제작 및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획됐

다. 2013년 이시원 작가의 희곡집 ‘낙자정원’에서 4편의 희곡을 CD 형태로 제작해 전국 35곳 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점자도서관에 대출서비스를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연세대 영문학과 최종철 교수가 번역한 출판그룹 민음사의 「세계희곡전집」 윌리엄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맥베스’를 라디오극과 같은 형태로 구성해 제작했다. 하반기에는 GKL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소리책으로 제작하게 됐다.

특히 이번 소리책에는 탤런트 김명국 씨가 재능기부에 동참한다.

경기도시각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를 통해 제작되는 소리책이 많아 야 연간 3~4편 정도인 점을 보면 도립극단의 소리책 재능기부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장르의 다양성과 전문배우들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풍성함이 더해 시각장애인들과 도서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노훈 기자 nhp@khihoilbo.co.kr

Culture 브리핑

내일 용인문화예술원서 경기민요~사물 판국 ‘국악의 향연’

제35회 경기종합예술제 일환인 ‘국악의 향연’이 한국국악협회 경기도지회의 주관으로 31일 오후 7시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열린다.

도내 31개 시·군지부에 모두 동지를 타고 있는 국악협회 경기도지회는 이번 공연을 통해 각 지방과 분과가 하나돼 국악실내악 연주를 비롯해 경기민요, 전통무용, 사물 판국 등 우리 전통을 향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우리 전통의 소리를 맘껏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을 통해 깊어 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풍요로운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연은 전석 초대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한국국악협회 경기도지회 사무국(☎031-236-1070, 230-3391)으로 문의 또는 국악협회 홈페이지(www.gukak.or.kr)를 참고하면 된다.

박노훈 기자 nhp@khihoilbo.co.kr

안양문예재단, 내달 7일까지 학술·전시자료 활용 유물 구입 접수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안양역사관과 김중업박물관의 학술 및 전시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유물을 구입한다.

유물 구입은 다양하고 새로운 자료 확보를 통해 안양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근현대 건축사를 재구성해 지역 전문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다.

구입 대상은 안양과 관련한 고문서, 민속품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과 김중업 건축가와 관련한 유물을 포함한 근현대 건축자료이다.

구매 신청은 오는 11월 7일까지 유물도매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김중업박물관(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silkworm99@ayac.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문화재 매매업자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도굴품 또는 도난품 등의 불법 유물은 신청에서 제외되며, 서식은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www.ayac.or.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안양=이정희 기자 jitlee6151@khihoilbo.co.kr



10월 마지막 밤 클래식과 함께... i-신포니에타 기획공연

현악앙상블 i-신포니에타가 준비한 특별기획공연 ‘10월의 마지막 밤을’이 31일 오후 8시 북합문화공간 콘서트하우스 현에서 펼쳐진다.

(사)인천사람과 문화, 한국지엠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는 테너 정진성과 소프라노 이선린이 출연해 사전 신청을 받

은 곡 ‘잊혀진 계절’ 등 가을에 듣고 싶은 가요·가곡·클래식이 연주될 예정이다.

공연 말미에는 노래와 함께하는 특별 이벤트가 준비돼 있으며, 공연 후에는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진행된다.

1만5천 원. 문의:☎032-834-1055, www.i-sinfonietta.com 양수녀 기자

포토뉴스



인천항만물류협회, 공동모금회에 4000만 원 기탁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천항만물류협회로부터 성금 4천만 원을 29일 기탁받았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인천대·인하대 물류전공 대학(원)생의 장학금으로 전달될 계획이다.

배준영 인천항만물류협회장은 “인천항만 업계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뜻을 모아 사회복지 및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진 기자 jhj@khihoilbo.co.kr



용인시의정회, 이우현 전 시의회 의장에 감사패

용인시의정회 이종재 회장은 29일 용인시의정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며 이우현 전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회장은 “이 전 의장은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탁월한 지도력으로 의정에 임했다”고 치켜세웠고, 이 전 의장은 “용인시 발전에 더욱 힘쓰라는 뜻으로 알고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윤민=우승우 기자 bison88@khihoilbo.co.kr



한전 경기본부, 고객사 29곳 초청 설비 견학

KEPCO(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최근 관내에 위치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중요 수요관리 29개 고객사 전력 관계자 38명을 초청, 765kV 신안성변전소 등 전력설비 3곳에 대한 견학을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견학에 앞서 윤상현 전력사업처장은 “지난 여름철 전력 수요관리 참여에 대한 협조와 최근 2년간의 전력수급 위기 시 적극적으로 수요관리 업무에 동참해 준 중요 고객사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배전센터 견학을 시작으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마네 케이블헤드와 신성남 지하전력구 및 신안성변전소 순으로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폭넓은 전력설비 견학·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박노훈 기자 nhp@khihoilbo.co.kr



건보 의정부지사, 금오동 행정타운서 신사옥 준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는 29일 의정부시 금오동 행정타운에서 신축 사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김충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조우현 경인지역본부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홍문종 국회의원, 최경자 의정부시의회의장 및 유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녹색성장 정책을 반영해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LED조명기기를 설치한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친환경 재료를 사용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어린 환우들에게 희망 날개 의술로 책으로 전하는 사랑

라오스 심장병 어린이 완치
길병원 초청치료 성공 축하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28일 심장센터 세미나실에서 라오스에서 온 심장병 어린이 환자의 완치 축하연을 가졌다.

행사에는 가천대 길병원 이근병원장을 비롯해 쏜릿칸티봉 주한 라오스 부대사가 참석해 힘든 수술을 견뎌 낸 환아들과 부모들을 격려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10일 라오스에서 다섯 살 매키 군과 생후 5개월 된 예코 군을 초청했다.

매키 군은 동맥관개존증과 혈소판감소증으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지만 벼농사로 일급 식구가 생활하고 있는 형편상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동맥관개존증은 폐동맥



과 대동맥을 연결하는 동맥관이 출생 직후 닫혀야 하지만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병이다.

예코 군은 심실중격결손 및 폐동맥협착증으로 현지에서 치료를 시도했지만 라오스 의술로는 수술을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나노의료사업과 가천대 길병원,

사람나눔의사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밀알심장재단,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등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초청돼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게 됐다.

매키 군은 29일 퇴원했으며, 예코 군은 약물치료 후 퇴원할 예정이다.

안재균 기자 ajk@khihoilbo.co.kr

신한카드 아름나도서관
성빈센트병원서 문 활짝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어린이 환우를 위한 ‘신한카드 아름나도서관’ 개관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카드 아름나도서관’은 어린이 환우들에게 독서환경을 제공해 책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독서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 입원 중에도 지식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신한카드사의 도서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도서관을 소아청소년과 병동인 62병동 휴게공간에 배치해 소아 환자들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였다.

‘신한카드 아름나도서관’ 개관식은 성빈센트병원 홍보대외협력실장 이강문 교수(소화기내과), 원



무팀 나승임 팀장, 62병동 한경미 파트장, 신한카드 배연태 본부장, 김선건 지점장 등 병원과 신한카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성빈센트병원 ‘신한카드 아름나도서관’은 병원에 입원 중인 어린이 환우들이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고, 책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환경으로

단장했다.

또 아동·청소년 권장도서 1천여권이 비치돼 있어 풍부한 독서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4시(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다.

이강문 실장은 “도서관이 병원 생활에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노훈 기자 nhp@khihoilbo.co.kr



따스한 情 녹아든 아름다운 선율

인천대 학생 등 자선음악회
수익금은 소외이웃에 기부

인천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 학생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자선음악회의 아름다운 선율이 송도캠퍼스 가을 저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인천대 사람나눔 교직원회(회장 경노훈 디자인학부 교수)는 29일 오후 5시 30분 송도캠퍼스 복지회관 소극장에서 대학 교직원 및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소녀가정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인천대 사람나눔 교직원회는 지난 2008년 인천대가 설립된 남구지역의 소년소녀가정을 돕기 위해 자선음악회를 시작했다.

매년 봄·가을 두 차례 개최되는 자선음악회는 처음에는 교직원을 중심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해 교직원 식당에서 조촐히 개최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소극장으로 장소를 옮겨 교직원뿐 아니라 학생, 교직원 가족들까지 참여하는 정감이 넘치는 작은 음악회 형태로 발전했다.

중어중국어과 장정아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음악회는 남구정 관개

자의 후원금 사용 내역 보고 이후 INU 앙상블(피아노·바이올린·클라리넷·비올라·첼로), 첼로 독주, 인천기타 앙상블(남구정 직원 찬조), 한국무용, 피아노 독주, 남성중창, 색소폰 독주, INU합창단 공연 등으로 이어져 공연 내내 청중과 연주자들이 파스함을 나누고 위로하는 정감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남구지역의 ADH중추군이 있는 과 학령제 학생 및 우울증 부모의 자녀 심리치료, 병원치료 등에 쓰일 예정이다.

최윤희 기자 cyt@khihoilbo.co.kr



LH 인천본부, 임대주택 입주인 자녀에 장학금

꿈나무 학비 마련 어려움 없도록 지원

한국도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임대주택 입주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입주인 자녀 19명에게 각각 100만~150만 원의 장학금(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입주인을 위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자녀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학생은 임대단지 내 입주자의 주거복지 협의체인 주거복지거버넌스와 단지 관리소장이 추천한 학생들을 LH 자체 심의와 장학금 운영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로 선발됐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7월부터 3개 민간기업 및 주거복지재단과의 협약 체결로 장학금 운영위원회를 구성, 총 3억5천만 원의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박인서 LH 인천지역본부장은 장학금 수여식 행사에서 “현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서 매 순간 열심히 노력한다면 장학생들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안재균 기자 ajk@khihoilbo.co.kr



인천소래초, 3일간 ‘가족의 날’ 행사 성황

전교생 형제·자매 맺어 학교폭력 날린다

인천소래초등학교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교생이 의형제·의자매와 함께 오봉산에 오르는 ‘소래 가족의 날’ 행사를 가졌다.

전교생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소래 가족 표현의 날 행사를 갖고 의형제·의자매와 가족 액자를 만들며 추억을 기념하는 예쁜 가족 배지를 함께 제작했으며, ‘소래 가족의 날’ 가족 배지를 함께 달고 오봉산에 올랐다.

형과 언니들의 도움을 받으며 산에 오르면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자신의 의형제·의자매의 친구를 사귀며 또래 관계를 확장해 나가기도 했다. 또한 의형제·의자매와 함께 점심 식사도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소래초교는 지난 3월 18일 전교생 결연을 통해 어울림과 공감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

김재성 기자 jskim@khihoilbo.co.kr



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집 고쳐주기 봉사

건설 전문가 이웃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가 7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이 한창이다.

29일에는 인천시 남구의 한 가정을 방문해 지붕 및 천장 보수, 도배, 장판 교체 등 주택 전체에 대한 보수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협회 봉사단과 회원사뿐 아니라 김상석 인천시 보 건복지국장과 남구 문한주 평생학습과장 등이 참여했다.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협회 봉사단은 인천지역 전문건설인으로 구성된 순수 자원봉사자 모임이다. 봉사자 모두가 특정 분야 전문건설사를 운영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낡은 주택 특성에 따라 맞춤형 봉사를 받아

고 있다.

올해의 경우 건설자재 전문업체인 KCC 인천점에서 벽지·창호 등 물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는 2008년부터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단장 조홍수)’을 구성해 매년 30~40여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46가구를 대상으로 크고 작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jh@khihoilbo.co.kr

‘오색 빛깔 영양쌀’로 지역 농업에 새 바람

화성 벨엘농장 대표 양진기 씨
‘백곡색미’ 브랜드 상품 제작
포장~판매 손수 챙겨 신뢰
꾸준히 노력해 역대 매출 달성

수입 농산물의 증가와 쌀 소비 둔화 등 당면하고 있는 농업과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소농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역대의 매출을 올리는 농업인이 있다.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의 ‘벨엘농장’ 대표 양진기(53)씨가 그 주인공.

현대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웰빙 식단에 착안해 오색쌀을 주력 상품으로 선택한 양 씨. 특히 그는 개인으로서의 드물

게 ‘백곡색미’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직접 유통·판매하는 등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

수원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양 씨가 고향인 화성시 마도면으로 내려온 건 17년 전인 1997년이다.

초보 전업농으로서 새 생활을 시작한 양 씨는 초창기 쌀과 벼짓 그리고 화성시의 대표 과일인 포도 농사로 시작했다. 그러나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수익으로 고민에 빠진 그의 눈에 띈 것은 웰빙 식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던 현미였다.

그는 단순히 현미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홍미·흑미·녹미와 잡쌀을 더해 오색쌀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홍미는 탄닌이 많아 항균·항산화 작용에 탁월하고, 흑미는 안토시아닌이 포함돼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녹미는 클로

르필 성분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8년도부터 오색쌀 재배를 시도했지만 당시 지역에서는 오색쌀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해 양 씨는 직접 발품을 팔아 법시를 구하고 독학으로 재배법을 익혔다. 2~3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는 연간 10t의 수확량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양 씨는 상품 판매를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백곡색미’라는 상표를 등록해 직접 포장부터 유통·판매까지 전체적인 마케팅을 챙기면서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초반에는 판로 확보에 애를 먹기도 했지만 입소문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납품까지 하고



있다. 여기에 40여 두에 달하는 한우 사육까지 하고 있는 벨엘농장은 양 씨 부부 두 명이 운영하는 영세 농장이지만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지역 농업인의 귀감이 되고 있다.

양 씨의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도전이 탄생시킨 ‘백곡색미’가 어려움에 직면한 화성시 지역 농업에 큰 자극제가 돼 주길 기대해 본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h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전체회의의 열려

29개 기관 모여 안전도시 구축방안 논의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28일 회의실에서 10개 공공기관장과 부천상공회의소 회장, 유한대학교 총장 등 19개 기관·단체장을 포함한 총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의장 김만수 시장은 “올해 원미서를 비롯한 3개 경찰서, 소방서 등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합심해 지역 치안에 열과 성을 다한 덕분에 부천시가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별 치안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천상공회의소, 유한대 등의 기관장과 3개 경찰서 협력단체장의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위촉식

을 가졌다. 또 올해 ‘교통SPEED UP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도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장도 전달했다.

특히 기관들은 회의를 통해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3개 경찰서의 추진업무 및 특수시책 등 협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으며 자유토론에서 유흥가 밀집지역의 교통환경 개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건널 때 앞만 보기’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치안협의회 부의장 남병근 원미경찰서장은 “이번 지역치안협의회 전체회의를 계기로 부천시내 유관기관이 모두 한마음이 돼 부천시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39@khihoilbo.co.kr



자유총연맹 오산지회·불교·기독교 합동위령제

종교계와 한국전쟁 희생 민간인 넋 위로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지회는 지난 28일 수정동 현충탑에서 제34회 자유수호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날 위령제는 변영일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지회회장을 비롯해 광삼육시장, 문영근 시의회 의장, 시의원, 기관·단체장과 시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불교와 기독교에서 각각의 종교의식으로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의식에 이어 변영일 자유총연맹 오산지회회장의 추념사와 광삼육시장의 추도사, 학생대표의 조시, 유가족과 기관장 등의 헌화와 분향으로 진행됐으며 해

병대사령부의 조총의식으로 마무리됐다.

광삼육 시장은 추도사에서 “22만 시민과 더불어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자유수호 희생자 영령들을 추모하고 명복을 빈다”며 “오랜 세월 깊은 아픔을 가슴에 안고 고통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수호 합동위령제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고 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hihoilbo.co.kr

다양한 평생학습 운영 ‘눈길’ 성남수정도서관 특별상 수상

성남 수정도서관이 29일 ‘2014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특별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정도서관은 지난해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회 규정상 2년 이내 정부포상 중복 수상 제한 규정에 따라 올해는 특별상을 받게 됐다.

수정도서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개한 독서문화 진흥사업 및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과 소통 공간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전국도서관대회’ 개막식에서 진행됐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청소년 건강 마인드 만들기 동참 인양동안경철서 학교폭력근절 행사 가져

인양동안경철서는 29일 비산초등학교에서 프로축구 FC인양 선수단과 학생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눈높이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FC인양 선수와 학생들 간 멘토-멘티 결연을 맺고 축구 경기를 펼쳤다.

이재술 서장은 “FC인양과 함께 학생들에게 체육활동 지원과 선도·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소년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했다. 한편, 인양동안서는 지난해 8월 FC인양과 업무협약을 맺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축구교실과 청소년 선도활동, 배식봉사 등을 펼치고 있다.

인양=이정택 기자 jtee6151@khihoilbo.co.kr

농산물 직거래 마련 ‘도농상생 길’ 활짝

가평 초롱이둥지마을
코리아에셋투자증권
1사1촌 자매결연 첫발

가평군 대표 농촌체험마을을 중 하나인 묵안권역 초롱이둥지마을과 (주)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지역·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즐거운 교류를 나눈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날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과 가평군 농촌마을 초롱이둥지마을이 문화 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상생관계를 유도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자매결연식 후 첫 주말인 11월 1일에도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직원들이 이곳 마을을 찾아와 농작물 수확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줄 예정이다.

초롱이둥지마을 강병욱 이장은 “오늘 정말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다”며 “우리 마을처럼 산골 농촌마을은 홀로 서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이번 1사1촌 교류를 통해 일손도 도움 받고, 좋은 농산물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묵안권역 초롱이둥지마을은 자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재료를 이용해 지역 고유의 맛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산악지대 마을로, 매년 4~5월 두릅 따기와 두릅묘목 심기, 잣 까기, 뽕잠공예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을거리, 야생화 전시를 함께 진행하는 ‘초롱이둥지마을 두릅축제’로

도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녹색산업 등 특화형 금융서비스로 이목을 끌고 있으며 ▶원주화훼단지 금융자문 ▶새빛동동섬 지분 매입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복합시설 개발사업 ▶사이판호텔 개발사업 금융자문 ▶둔포신도시 상가 금융자문 ▶여의도 한서 오피스텔 담보대출 등 특화된 기업금융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m@khihoilbo.co.kr

알림 ▶인천 항만업·단체 및 유관기관 간담회=30일(목) 오전 7시 30분 파라다이스호텔. ▶부천시 무지개작은도서관 개관식 및 청소년카페 개소식=30일(목) 오전 10시 웅진수협소사지점 2층. ▶가평군 2014 농업인 한마음대회=30일(목) 오전 10시 30분 실내체육관. ▶부천대학교 준공식=30일(목) 오전 11시 대학로 내 회전교차로.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인천국제도시포럼=30일(목) 오후 1시 30분 송도컨벤시아. ▶용인시 2014년 제6회 레인보우아카데미=30일(목) 오후 2시 에이스홀. ▶서울7호선 인천 석남동 연장 건설공사 기공식=30일(목) 오후 3시 30분 서구 석남동 224-17번지 일원.

포토뉴스



하남 신장1동, 소외이웃 초청 한마음 생일잔치 가져

하남시 신장1동은 지난 28일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저소득 홀몸노인·장애인 30여 명을 초대, 한마음 생일잔치를 열고 식사 제공과 함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동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식사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훈훈한 정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hihoilbo.co.kr



항상돈 씨 등 5명 평택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수상

평택시는 ‘제17회 평택시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수상자 5명을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업인대상은 농업의 경영화와 과학화, 농축산물의 고품질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 농업과 복지농촌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한 농업인이나 단체 등에 수여하고 있다.

선발 부문은 쌀생산 부문, 과수·화훼 부문, 채소·특작 부문, 축산·수산 부문, 환경농업·신기술 부문 등 모두 5개 부문이다.

수상자로는 ▶쌀생산 부문=황상돈(수도작 재배) ▶과수·화훼 부문=안성용(화훼 재배) ▶채소·특작 부문=최선재(오이·토마토 재배) ▶축산·수산 부문=박순철(한우 사육) ▶환경농업·신기술 부문=이계성(블루베리 재배) 씨가 선발됐다.

수상자 시상식은 다음 달 11일 농업인의날 행사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향후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 관련 수상 후보자 추천,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평택=윤영준 기자 yjy@khihoilbo.co.kr



광주 공무원직장협의회, 족구대회 통해 화합 다져

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28일까지 5일간 광주공설운동장에서 ‘2014년 직협회장배 공무원 한마음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족구대회는 그동안 경기도 종합갑수 수감 등 바쁜 일과 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 상호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5일간 일과 시간이 끝난 오후 6시부터 부서별 대항전으로 치러진 족구대회는 총 21개 부서가 참여해 각자의 숨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4일간의 예선전을 거쳐 28일 준결승과 결승전을 치렀다. 우승은 건설과에 돌아갔으며 준우승 하수과, 3위 농업진흥과, 4위 총무과가 차지했다.

이영수 직협회장은 “이번 족구대회를 통해 직원 상호 간 유대관계를 증진시키고 직원들의 친목과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더불어 함께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시상식에 참석한 조억동 시장은 그동안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직원들과 화합하고 즐기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사 간 협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hihoilbo.co.kr



우리나라 최고의 누각 중 하나로 칭송받는 영남루. 밀양강을 위 높은 절벽에 자리잡아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나이 지긋한 백발의 노신사부터 손자뻘 되는 청소년까지 101명의 역사 기행단 한곳에
울긋불긋 가을정취 안고 한 곳 한 곳 다니다 보니 과거에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꿈꾸네



- ▲▲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의병장 객재우 동상 앞에서 추도하고 있는 모습.
- ▲ 남명의 선비 정신이 새겨진 덕천서원.
- ◀ 의기 논개가 적장을 안고 투신한 의암.

29번째 새얼역사기행... 선비와 의병의 고장 경상남도를 가다

“마치 100년 된 큰 나무에 벌레가 속을 갉아먹어 진액이 다 말라 버린 듯합니다.”
「명조실록」에 나오는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이 1555년 단성현감을 제수받고 올린 사직 상소문의 한 구절이다. 퇴계 이황과 동시대를 풍미했던 남명. 그가 이 시대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이유는 왜일까. 그를 찾아간 것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새얼문화재단의 29번째 역사기행에서다. ‘선비와 의병의 고장’을 찾아 떠난 이번 여행은 출발부터 녹록지 않음을 충분히 예감할 수 있었다. 뻘뻘한 일정 탓만은 아니다. 나이 지긋한 백발의 노신사에서 그들의 손자뻘되는 청소년까지 101명에 달하는 참가자 모두 나를 저마다의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이번 역사기행을 처음부터 기획한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사람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며 조금은 모호한 주제를 던졌다. 101명의 역사기행단을 태운 4대의 전세버스는 어느새 인천을 벗어나 시원스럽게 뚫린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도로를 따라 은빛 역새가 햇살에 부서지고 차창 멀리 안개 낀 산 허리춤 사이로 울긋불긋 고개를 내민 단풍이 가을의 정취를 짙게 한다.

선현의 모습에서 참사람을 찾다

“백성들, 이 가렴주구를 어이 견뎌내리!”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경남 밀양에 위치한 영남학파의 시조, 점필재(占畢齋) 김충직(1431~1492)선생을 모신 예림서원이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늘 정치와 사상의 중심에 있었던 영남사람의 종주인 그는 왜 스스로를 책의 글자만 읽을 뿐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아둔한 ‘점필’이라 했을까.

궁금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이어 도착한 영남루(嶺南樓). 우리나라 최고의 누각 중 하나로 칭송받는 영남루의 위풍당당한 이 당시 영남사람과의 위세를 짐작케 한다. 반대로 예림서원은 사람의 영수로서 한없이 겸손했던 선비 김충직을 닮았다. 아마도 그는 질편한 모래별판 너머 사람들이 배를 기다리는 나루터를 지나 다 언덕 위에 우뚝 솟은 누각을 바라보며 이같이 읊었을 것이다.

“누각 아래 배에다가 천만 껌미 돈을 실었으니 남도 백성들이 이 가렴주구를 어이 견뎌내리.”(김충직의 한시 ‘낙동요’ 중에서) 비록 그는 무오사화 때 부관참시(副官斬屍)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그의 올곧은 선비정신은 남명에 의해 후대로 이어졌다.

이번 역사기행에 가족과 함께 참여한 정두용(49)씨는 영남루 누각에 앉아 어린 아들에게 ‘군자란 말보다 앞서 행동을 하며, 그 다음에 그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논어 위정편을 이야기했다. 이후 일행은 천년고찰 표충사(表忠寺)로 발길을 옮겼다.

최근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재약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만난 문성남 문화해설사는 “가장 먼저 하늘을 보고, 그 다음 천천히 사찰을 둘러보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일행에게 빨강계 물든 단풍잎에 가을을 담아 선물했다.

표충사는 1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동방 제1선찰이다. 신라 무열왕 원년(654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국사가 이곳에서 불법을 중흥했으며,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를 모신 호국성지다.

매번 아버지와 함께 새얼역사기행에 참가한다는 허기석(23)씨는 “올해는 일이 바빠 아버지를 놔두고 혼자 참가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아들게든 이곳의 맑은 정기를 담아 가야겠다”고 했다.

“선비는 왜 품에 방울과 칼을 지녔을까?”

영원한 처사(處士), 재야의 선비로 불리는 남명. 그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역사기행 이틀째, 일행은 영남사람의 종주가 있는 밀양을 떠나 남명이 죽는 날까지 머물렀던 지리산 자락의 산청으로 향했다. 남명의 일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그가 명종 11년(1556)에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 ‘율미사직소’ 일 것이다.

상소문에는 임금이 정6품직인 단성현감의 벼슬을 내리자 남명이 이를 거절하며 외척의 전횡과 파쟁으로 인한 정치 문란 등을 날발이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왕의 어머니 문정왕후를 ‘깊숙한 궁정의 한 과부’라고, 명종을 ‘나이 어린 교아’라 칭한 것은 당시 정치제도에인 군신관계로 볼 때 감히 상상하기 힘든 대목이다. 500여 년이 지나 나라의 주인이 바뀐 지금도 매한가지 일 거란 생각에 괜히 씁쓸한 마음만 들 뿐이다.

남명은 이렇듯 임금이 세 번 바뀌면서 12번의 벼슬을 제수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평생을 시골에 은거한 선비, 처사로 남았다.

항상 성성자(惺惺子)라는 방울 두 개를 지니고 경의검(敬義劍)을 허리에 차고 다녔다는 남명, 유학이 실현하고자 하는 진리 구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이 남명의 업적을 설명하고 있다.

현의 방식이 수기치인(修己治人)임을 평생의 삶으로 보여 준 그는 조선의 선비다.

그가 후학들을 상대로 강학하던 자리에 세워진 덕천서원에 도착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 깊숙이 스며든다. 정신까지 맑아 오는 느낌이다.

족히 수령이 수백 년은 돼 보이는 은행나무 밑에서 남명의 몇 대 손일지 모르는 조종명 문화해설사에게서 그가 살아온 생을 전해 들었다. 마치 성지순례라도 하듯 그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숙인다. 나뉠일과 나는 별개인 듯 살아온 현실에 호된 회초리를 맞은 것처럼 종아리가 아려 온다.

이번 여행에 아내와 함께한 조진형(71)전 국회의원은 “초야에 묻혀 군왕계 거침없이 할 말은 했던 처사의 삶이 오늘날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한다”고 했다.

남명의 이 같은 가르침은 훗날 임진왜란 때 더욱 빛을 발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이자 그의 외손녀 사위인 객재우를 비롯해 정인홍(淸仁弘) 등 제자 50여 명이 망설임 없이 의병을 거병한 것이다. 당시 경상우도였던 진주를 중심으로 남명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행은 남명의 일이 숨쉬는 산청에 들른 김에 구암(龜岩) 허준 선생까지 만날 수 있었다. 그의 업적을 기린 동의보감(洞悉館 醫藥寶鑑)에서 새삼 한의학의 우수성을 배우며 몸까지 건강해지는 행운도 얻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행의 마지막 날, 뻘뻘한 일정에 고될 만도 할 텐데, 왠지 몸과 마음은 기운이 넘친다. 선비의 고장에서 정신까지 힐링한 느낌이다.

일행은 내친 김에 역사와 총질, 인재와 선비의 고장 진주로 향했다. ‘우리나라 인재의 절반은 영남에서 나고, 영남 인재의 절반은 진주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 주민들은 문화적 자긍심이 강하다.

역사기행단이 이곳에 도착해 가장 먼저 찾은 진주성에서는 마침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이날은 진주성에 있는 축석루를 국보급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시민문화제가 열리고 있었다.

진주성은 한산도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으로 불리는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또 의기(義妓)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투신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밖에도 진주목사 김시민과 흥의장군 객재우의 활약상이 잘 보존돼 있다.

박상문 인천제21 상임회장은 “나라가 어려울 땐 이유가 있다. 권력이 부패하거나 독신이 지나칠 때다. 결국 백성과 함께했던 훌륭한 선현들이 있어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역사기행에 의미를 부여했다.

일행은 성철스님의 생가터에 자리잡은 겹외사(劫外寺)를 마지막으로 2박 3일간의 역사기행을 마쳤다. 스님이 남긴 법어를 곱씹으며 우리는 그의 사람 냄새 나는 유품들을 찬찬히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여행에 함께한 고대영 인천재가불자총연합회장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 하신 스님의 말씀은 아마도 눈에 보이는 모습만 집착하지 말고 그 속의 본질을 보라고 하신 말씀 같다”고 했다.

사람을 찾아 떠난 이번 역사기행에 긴 울림으로 남는 말이다.

지컨데 기자 jus216@khoilbo.co.kr

남명의 율미사직소가 적힌 비문.

김광현, 류현진급?

메이저리그 좌완 도전 선언

유력 구단과 포스팅 금액 등 2년 전 ‘류현진 만큼의 대우’ 받아낼 수 있을지 최대 관심
과거 부상 경력은 변수 작용
회견서 “죽을 힘 다해 뛸 것”



SK 와이번스 김광현이 29일 서울 마포구 삼양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진출 추진 기자회견에서 야구공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원소 에이스 김광현(26)이 29일 메이저리그(MLB)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이제 관심은 그가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으며 미국 무대에 입성할 수 있을 까에 쏠린다.

SK 임원일 대표이사와 민경삼 단장은 이날 서울 삼양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MLB 진출에 동의한다”고 지원을 예고하면서도 대우의 기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투경을 열어 봐야 알 수 있는 일

이기는 하지만, SK 관계자에 따르면 MLB 구단의 관심 등 주변의 분위기는 좋은 편이라고 한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기대 이상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선수들에 관한 해외 구단의 관심과 기대는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김광현이 올 시즌을 앞두고 메이

저리기에 도전하고 싶다는 꿈을 피력한 이후, 그가 등판한 경기에 MLB B 구단의 스카우트들이 찾아와 지켜보는 것은 흔한 풍경이 됐다.

김광현의 등판에 관심을 두고 지켜본 구단은 최고 명문인 뉴욕 양키스를 필두로 시카고 컵스, 미네소타 트윈스, 텍사스 레인저스,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볼티모어 오리올스 등 다양하다.

188cm의 큰 키에서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뿜어내는 좌완 투수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귀한 재목으로 꼽히기에 김광현에 군침을 흘릴 이유는 충분하다. 전성기에 류현진과 함께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양대 좌완 투수’로 꼽혔다는 점, 올해 타고투저의 광풍 속에서도 토종 투수 중 가장 좋은 3.42의 평균자책점으로 부활에 성공했다는 점 등은 김광현의 앞날을 밝히는 요소다.

외국인 선수들의 현지 적응을 돕는 스포츠 컨설팅업체인 글로벌 스포팅 인티그레이션(GSI)이 이달 초 공개한

‘김광현 리포트’를 보면 빅리그 스카우트들이 꼽는 그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MLB 스카우트들은 “김광현처럼 시속 92마일(약 148km) 이상의 공을 던지는 좌완 투수는 MLB에도 흔치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광현은 단점 역시 뚜렷한 선수인 것이 사실이다. 첫 번째 결림들은 부상 경력이다. 이제는 완치됐지만, 올해 부활하기 전까지 어깨 부상에 시달렸고 과거 안면 근육 마비 증세를 경험하기도 했다. 아울러 훌륭한 구위에 비해 컨트롤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 스카우트는 “스트라이크존에 들어가는 공의 비율이 50%를 밑돈다”며 “좌타자를 상대하는 게투 요원으로 더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2년 전 류현진이 MLB에 진출하면서 받아낸 포스팅 금액(2천573만7천737달러33센트)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재능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자존심은 지킬 만한 대우를 받으리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특히 김광현 자신이 “선발이든 불펜이든 보직에 상관없이 날 원하는 팀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던지겠다”며 도전 자체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빅리그에 입성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연합뉴스

기획 인천장애인AG는 무엇을 남겼나 [하] 장애인스포츠 미래 고민할 때

그들도 ‘우리처럼 뛸 권리’ 있음을...

일정 변경 통보 안 되는 등 운영 미숙
열정 하나로 도전하는 선수 보며 공감
대회 계기 인프라 지원 비율 확대돼야

국제스포츠이벤트에서 100% 완벽한 대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안전사고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됐을 경우 성공 개최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역시 완벽하다 할 수 없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시민들의 관심 부족이었다. 이어 대회 운영 미숙, 재정 부족 등이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장애인들이 완전히 아닌 몸으로 종목별로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일반인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자리다. 시각장애인이 축구를 하고, 휠체어를 탄 척추장애인의 배드민턴, 하리 아래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수영을 하는 모습은 눈물과 감동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지만 시민들은 없었다.

총 23개 종목이 열린 경기장에는 빈 자리가 더 많았고, 언론 역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개·폐회식을 빼고는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 사실이다.

대회 이틀날과 다음날까지 전산장애로 경기기록 집계에 차질을 빚는 등 대회 운영부분에서도 미숙함을 드러냈다. 지난 19일 한국 첫 금메달을 안긴 사이클 김종규(오른쪽)가 출전한 인천국제벨로드롬(트랙 사이클) 경기장에서 당초 대회가 이를

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20일 비가 예보돼 사이클 대회기 술감독위원회(TD)는 이날 오전 9시께 고심 끝에 대회를 하루에 모두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조직위 경기운영 본부는 경기 일정 변경 내용을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께 전파, 김종규의 금메달이 확정된 후 한참이 지나서야 대회 일정 변경이 공지됐다. 결국 김종규의 우승 장면을 보고 싶었던 관람객은 물론 대회 2관왕의 탄생을 기다리던 미디어 등은 감동의 모습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또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기 시간과 실제 경기가 다르게 열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장애인경기 특성상 당일 출전 명단 제출로 경기 시간이 변경되는 일이 다른 국제대회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조직위 측 설명이 있었지만, 철저히 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이다.

조직위의 운영미숙과 함께 재정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장애인스포츠의 특성상 기업 이익 및 홍보 효과를 노린 후원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60%이상으로 높여야 했지만 이번 대회 어려움을 겪으며 재정부족에 시달렸다. 또 장애인스포츠는 감동과 공감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당국의 전향적인 교

육방향 전환과 학부모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자는 국민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회가 우리 사회에 남긴 메시지고 속제다. 최윤희 기자 cyt@khihoilbo.co.kr



비거리 330야드의 120타석 서해 바라보며 황홀한 티샷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유일한 초대형 인도어 골프연습장인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대표 김응기)’이 지난 25일 그랜드 오픈했다. 송도 제2호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조감도)은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티샷을 할 수 있는 비거리 330야드의 120타석과 피트니스, 파39홀 등을 갖춘 인천지역 최대의 골프클럽으로 2천600여 개의 1단 로커, 최신식의 오토티업(볼 공급시설)과 휴식시간 없는 자동 볼 수거 시스템 등을 완비했다. 또한 지문 인식을 이용한 빠른 타석 배치와 풀HD급 생생한 초대형 크기의 스크린골프, 외국어를 구사하는 프런트 직원, 피트니스 전문 트레이너 등이 배치됐으며 KPGA 및 KLPGA 출신 프로골퍼들의 레슨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2600개 1단 로커 등 완비... 내달까지 이벤트 상품 판매

있으며, 커피숍에서는 편안한 소파에서 다양한 웰빙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은 개장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시타 행사를 진행해 1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골프가 취미인 한 시민은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지만, 특히 넓은 시각과 바다를 전망하면서 연습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김응기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대표는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 개장을 계기로 인천의 골프 스포츠 레저산업과 지역의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인천시민의 체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인천시민 우선 채용을 통해 고용 효과 증대 및 지역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유니버스골프클럽은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특별 이벤트 상품을 11월 30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며, 인천시민에게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인천시민을 위한 상품 또한 곧 출시할 예정이다. 한동식 기자 dshan@khihoilbo.co.kr

연수구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날!!!

2014 꿈을 만드는

아Zoom마 축제

All in one azooma

일시_ 2014 / 11 / 1 토

장소_ 연수구 스퀘어원

공식행사

12:00~13:00
- 가족 참여형 레크레이션

13:00~13:30
- 식전공연, 내빈소개, 축사, 격려사, 개회선언

13:30~14:30
- 김미화와 함께하는 이 시대의 아Zoom마 토크쇼

14:30~15:30
- 아Zoom마 장기자랑대회(자유부문)

15:30~16:00
- 아Zoom마 발연대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게 홍보 등)

16:00~16:30
- 초청가수공연

16:30~17:00
- 대회 시상식 운영 및 폐회식

부대행사

12:00~17:00
- 아Zoom마 예술품 전시회

주최_ 기호일보

주관_ (사)문화예술발전협의회

후원_ 인천광역시 연수구

오늘의 경기

◇30일(목) ▶제95회 전국체전(오전 9시·제주 일원) ▶프로야구=플레이오프 3차전 넥센-LG(오후 6시 30분·잠실) ▶프

로배구=여자부 GS칼텍스-현대건설(오후 5시·평택 이충문화체육관) 남자부 우리카드-한국전력(오후 7시·아산 이순신체육관) ▶프로농구=동부-전지랜드(원주종합체육관) KGC인삼공사-오리온스

(양양체육관·이상 오후 7시) ▶골프=해럴드 KYJ 투어챔피언십(롯데스카이힐 제주 골프장) ▶빙상=전국남녀 중독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오후 3시·태릉국제스케이팅장)

고양시, 수억짜리 방범망 갖췄더니 CCTV와는 먹통

업체와 계약 후에 100여 대 증설
방범관제센터 프로 호환 안 되는
카메라 설치된 사실 뒤늦게 발견
경기도서 감사... 책임론 불가피

고양지역 범죄 취약지역에 올해 새롭게 설치된 방범용 CC(폐쇄회로)TV 100여 대가 시의 방범관제센터 통합 프로그램과 상호 호환이 안 돼 발설을 빚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해당 공사를 수주한 A업체에게 기존 시방서를 무시하고 부실 운영체계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기도가 감사에 나선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동종 업계 일부 업체들이 경기도에 진정서를 내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는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범지역,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100여 대를 추가로 증설하기로 하고 지난 6월 입찰을 통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이 업체는 이미 5억여 원을 들인 방범안전망 통합 프로그램과 호환되지 않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도에서 감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경찰 등의 요구로 기존 SD급(41만 화소) 카메라 중 256대를 풀HD급(130만 화소)으로 교체해 운영한 결과, 화면 끊김 현상과 음향 문제 등이 발생해 업체 측에 개선을 요구했지

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모니터링 집중도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는 해당 시방서와는 다르게 A업체에게 방범관제센터 통합 프로그램과 상호 호환이 불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승인해 결국 무용지물로 전락시켰다. 실제로 시는 2011년 덕양구 행신동에 방범관제센터를 준공한 뒤 A업체와 5억 원을 들여 CCTV 통합관제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관내 454곳에 CCTV 총 2천8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시가 증설에 나선 CCTV 100여 대는 공사 당시 기존 시방서에 ‘시스템 간 완전한 호환성·연계성 등이 유지되거나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로 인해 시는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A업체의 한 관계자는 “교체돼야 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시방서에 명시된 기존 프로그램과 호환 연동이 안 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계가 기준으로 5억 원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당 공무원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검증도 안 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용인서 유명 상표 불량 등산화 빼돌려 유통한 일당 입건

용인서부경찰서는 29일 국내 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불량 등산화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모 하청업체 임원 A(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빼돌린 등산화를 사들여 유통한 B(67)씨 등 다른 유통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시 소재 모 신발제조업체 임원인 A씨 등 2명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검인 과정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등산화 400켤레(5천원 원 상당)를 빼돌려

지난해 8월 부산시의 신발유통업자 B씨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량 판정을 받은 등산화는 해당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에서 임직원 상대로 판매되거나 전량 폐기돼야 하지만 A씨 등은 육안으로 불량품을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신발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정품의 절반 가격에 판매됐다”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우 기자 bison88@khihoilbo.co.kr

‘가을걷이’ 도둑맞는 농가

도내 농작물 절도사건 늘어 경찰서별로 집중 순찰 계획

경기도내에서 매년 가을철 수확기 때마다 농작물 절도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10~11월 수확기 농작물 절도 대는 공사 당시 기존 시방서에 ‘시스템 간 완전한 호환성·연계성 등이 유지되거나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로 인해 시는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7건, 20건, 7건 등으로 검거율은 37%, 33%, 21.9% 등 점차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달 말까지를 농작물 절도 특별방범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농가나 경작지, 보관창고 등을 집중 순찰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는 특별방범활동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순찰을 하고 있다. 이천시는 주요 경작지를 연결한 순찰 노선을 분류, 순찰차량 내비게이션에 입력해 수시 순

찰한다.

이천시는 경작지별 담당 경찰관을 지정해 순찰하고, 여주서는 지역농협과 함께 농가 및 경작지에 적외선 경보기를 설치해 범죄 예방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농작물 절도는 단순한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넘어 농민들이 1년간 흘린 피와 땀을 훔치는 행위”라며 “농작물 절도사건은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순찰을 강화해 사건 발생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hihoilbo.co.kr



수원대학교수협, 학교 정상화 특강 수원대학교수협의회와 다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29일 수원대학교 정문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한 길거리 특강에 앞서 학생들에게 홍보 전단지들을 나눠 주고 있다. 화성=홍승남 기자 nam1432@khihoilbo.co.kr

도청 팀장 ‘내부고발 해임’ 취소 소송 승소

위탁 대학의 사업비 횡령 등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고발로 해임된 전 경기도 청 팀장이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구춘민 전 경기도 대학협력팀장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정한 사업비 유용이 사실로 확인됐고, 악의적이거나 개인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8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상사 음해는 증거가 부족하

고, 보조사업 관리·감독 소홀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나머지 6가지 사유는 원고가 잘못했다”고 판시했다. 내부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보복 인사를 주장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나 소청, 인사상담, 고충심사 등 적법한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보호가치가 있는 내부 고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 전 팀장은 지난해 7월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 정산 보고서를 검토하다 위탁 대학의 사업비 유용 등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도 담당 국장은 의견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검증될 때까지

보안 유지를 지시했지만, 구 전 팀장은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리며 간부공무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구 전 팀장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고, 구 전 팀장은 보복 인사를 주장했다. 구 전 팀장은 또 과거 현장답사 성과를 동료 직원이 가로채기했다고 주장하는 등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항고하기도 했다. 이후 도는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등 8개 위반사항을 이유로 구 전 팀장의 해임을 결정했고, 구 전 팀장은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오늘의날씨

10월 30일(목)

해돋이 06:54
해질녘 17:37

달돋이 12:30
달질 23:13

은행인 책장에 끼워 추억 만들기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겠음. 아침 최저기온 2~11도, 낮 최고기온 19~21도 분포.

바다날씨 (오전)				강수량률(%)			
	풍향	풍속	파고	지역	오전	오후	
서해	동~남동	4~7	0.5~0.5	인천	10	20	
남해	동~남동	4~7	0.5~0.5	수원	10	20	
동해	남~남서	5~8	0.5~0.5	동두천	10	20	
				이천	10	20	
				양평	10	20	
				강화	10	20	

제공 Kweather www.630.co.kr

부천시 장애인 상습 폭행한 동네조폭 구속

부천원미경찰서는 장애인에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일삼은 혐의(상습폭행)로 동네조폭 A(5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초순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모 아파트에서 장애인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금까지 총 18회에 걸쳐 장애가 있는 약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 거절하면 폭행과 협박을 반복해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상황에서 경찰은 ‘찾아가는 포돌이 특목’의 형사활동과 동네조폭 홍보활동 및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서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등 피의자를 구속 수사에 달라는 탄원서(주민 100여 명 연명남인)도 제출받았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팔달구청 환경미화원, 행인 때린 혐의 조사

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행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팔달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윤모(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팔달구 매향동에서 출근 중이던 시민 A(45)씨를 이유 없이 때린 혐의다. 윤 씨는 이날 처음 본 A씨에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있으면 나에게 얘기하라”고 말했고, 이에 A씨가 “내가 왜 그래야 하나”며 따지자 윤 씨는 욕설과 함께 “나 공무원이야”라고 말하며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또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말리는 경찰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나훈 기자 herod43k@khihoilbo.co.kr

www.kihoilbo.co.kr

2014 경인지방자치 기호사진연감

국제화 시대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경인지역의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정리해 후대의 귀중한 역사적 자료인 「2014경인지방자치기호사진연감」

경인지역의 지나간 한 해를 담은 2014경인지방자치기호사진연감은 단순한 사진으로 보는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직시하면서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보다 향상된 미래를 향한 제언 및 호소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계승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은 선도함으로써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평을 열어 앞서가는 선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 발행 | 기호일보
| 구입문의 | 출판사업부 T.(032)761-0007 | 정가 | 200,000원

택시 금연이라는데 여전히 불쾌한 냄새 왜

대중교통 환경 개선... 기사 등 흡연 땀 과태료 10만 원
인천 시·군 관리 단속 인력 전무... 시행 한 달 하나하나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지만 인천지역에서는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내 흡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10개 군·구는 현장 적발 인원이 없어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을 완전히 금지했으며, 차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승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쾌적한 택시와 대중교통 환경을

을 만들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역 내 일부 택시기사들은 승객이 없는 틈을 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시민들은 불쾌함을 토로하고 있다.

부평구에 사는 강모(37·여)씨는 “최근 택시를 탔다가 담배냄새가 너무 역해 내려 달라고 했는데 기본 요금은 내야 한다길래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며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속 권한을 가진 지역 내 군·구 등 기초단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시민 신고에만 의지, 단속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A구 관계자는 “단속을 위한 외근 근무자를 둘 수 없을 정도로 인력이 부족해 단속 건수는 현재까지 없다”며 “시민들이 택시기사들의 담배 피는 모습과 차량 번호를 촬영해 이메일이나 서울행정시스템으로 신고해 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택시기

사들은 택시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뿐더러 일부는 알면서도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택시 안에서 흡연하고 있다.

B택시회사 관계자는 “택시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 모르는 직원도 많다”며 “알더라도 단속이 없으니 별 신경을 쓰지 않기도 하는데, 시민들의 쾌적한 택시 이용을 위해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기자 ditto@khiolbo.co.kr



北 포격 4년이나 지났는데... 연평부대 시간은 멈춰있다

피폭된 건물 그대로 방치
안전등급 ‘철거’ 판정에도
국방부, 예산 번번이 제외
국감서도 책정 기준 질타

연평도 연평부대 군인들이 아직도 북한군 포격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년 전 발생한 포격 당시 피폭된 연평부대 건물(사진)이 아직까지 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인천시와 옹진군, 연평부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포격 당시 연평부대 본부가 북한군이 쏜 포탄에 피폭당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1995년 9월 신축된 연평부대 본부 건물은 해무 등 기상 악화 영향으로 노후 및 시설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2년 4월 안전검사서에서 D급 판정(철거

대상)까지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해병대가 총예산 85억 원을 들여 북한군 포병사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본부를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단 한 톨의 예산도 책정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해병대가 요청한 내년도 연평부대 본부 신축 예산액 11억5천만 원마저 삭감 처리, 자체 예산으로 수리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27일 끝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평부대 본부 신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방부의 예산안 책정 기준을 성토했다. 일부 의원은 민간인 2명과 군인 2명이 희생된 연평도 포격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며 국방부를 질타했다.

이재훈 기자 ljh@khiolbo.co.kr

여고 실험실서 화재 발생
인천교육청 사고조차 몰라
재난안전시스템 구멍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A여고 1층 화학실에서 실험기자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만 143만 원을 냈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학교에는 36개 학급 600여 명의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화재 발생 경보가 울렸지만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경보기가 고장나 수시로 비상벨이 울린 적이 있어 이날 화재도 평소와 다른없는 고장으로 생각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방송으로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하는 동안 자칫 불이 번져 대피로가 사라졌을 경우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잠시 뒤 화재 전원에서 가까운 학생부 교사들이 인솔해 모두 운동장으로 대피시켜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한 번에 학생들이 몰리면 대피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까봐 방송으로 먼저 대기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후 가까운 학생부 운동장으로 대피시켰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사고 다음 날 오후까지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909개 학교를 관리하는 시교육청의 재난안전시스템인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창호 기자 ych23@khiolbo.co.kr



영종 삼목선착장 해상서 어선-예인선 충돌 2명 실종

29일 오전 6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삼목선착장 500m 앞 해상에서 어선(7.93t)과 예인선(221t)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선기 전복, 선원 4명 가운데 선장 김모 씨 등 2명이 실종됐다. 나머지 2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이날 해양경찰이 사고어선을 선착장으로 옮긴 뒤 수색 작업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통학길 버스를 말도없이 없애나

인천시, 일신~산곡동 노선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일방 변경
日 1000여 명 이용 주거밀집지... 운영사만 편의 탁상행정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부평지역 좌석버스 노선을 변경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노선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부평구 일신동에서 부개1·부평6동, 산곡1·2·3동을 지나 동춘동을 오가는 103·

103-1번 버스 노선을 변경, 일신동~산곡동 노선을 지난 8월부터 전면 폐지했다.

주민들은 노선 폐지로 부평역으로 나가는 버스의 배차 시간이 지연될 뿐 아니라 백운역으로 가는 버스는 아예 없어서 노선 부활이나 대체 노선을 투입하라고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103·103-1번 버스는 하루 평균 1천여 명(학생 300여 명 포함)의 승객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버스가 지나던 지역엔 10여 개 학교에 1만여 명의 학생이 등교하고 거주 주민만 13만여 명에 달한다.

폐지된 구간에는 대형 쇼핑센터와 마트 등 주변 상권이 발달해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시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103·103-1번 버스 운영사인 강인여객의 차고지 이용 편의 및 가좌·석남동 주민들의 7호

선 부평구청역 연결을 이유로 일부 구간 노선 변경·폐지를 결정했다.

주민 이모(42·일신동)씨는 “노선이 폐지된 곳은 가뜰이나 원도심이라 출퇴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의견 수렴 없이 노선을 없앤 것은 전횡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중학생 김모(15)양은 “노선 변경으로 유일하게 남은 12번 버스밖에 없어서 그런지 등·하교 시간 사람들로 꽉 찼다 불편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을 처리한 것”이라며 “대를 위한 소의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hiolbo.co.kr

인천 남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 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장석원 인천시 남동구청장에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29일 오후 1시 55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장 구청장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 마치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법이 정하는 바를 넘어서는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

아들이지 않으며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허위 경력이 일반인의 피고인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이 없고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직후 잘못된 선거운동을 바로잡은 점, 기부한 액이 1천이며 금액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적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이날 장 구청장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인영 기자 ditto@khiolbo.co.kr

냉난방 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하세요.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수명이 오래가는 명품 고급방수”

용인시청

영등포경찰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주]이파일지종합특수방수

블로그 <http://blog.naver.com/waterproof01> **www.IPALG.co.kr**

인천·부천 (032)471-6020	안양·안산 (031)422-1237	과천 (02)502-0494	안성 (031)676-2885	구리 (031)567-5576	동두천 (031)861-5576	광주 (031)767-0470
남수원·화성 (031)233-8061	고양·일산 (031)907-6029	광명 (02)2625-7904	의왕 (031)241-6921	포천 (031)531-5567	김포 (031)907-6029	군자읍 (031)767-0470
북수원 (031)241-6920	의정부 (031)872-5576	성남 (031)733-4416	평택 (031)657-0423	양주 (031)842-5576	용인 (031)322-7751	가평 (033)243-1728
양평·용문 (031)771-7782	남양주 (031)594-4416	하남 (031)734-4417	오산 (031)372-0893	파주 (031)947-5576	이천 (031)636-7783	춘천 (033)241-8954

나의 이름은 금메달리스트

이건국, 첫 출전 감격 두 배 안용권 바벨은 시련 없다 ‘AG기세’ 이어간 양정두

사격 공기소총 남고부 2관왕 명중 연구하는 사격인으로 성장 목표

“처음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대회 2관왕을 올라 기쁩니다.” 29일 제주고등학교 사격장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사격 공기소총 남자고등부에서 대회 2관왕에 오른 이건국(고양 주엽고)은 우승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이건국은 이날 윤현(경기체고), 남태운, 조현욱(이상 한광고)과 팀을 이룬 단체전에서 1천770점을 합작하며 경기선발이 대전체고(1천766점)와 서울선발(1천764점)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남자고등부 개인전 결선에서 205.4점을 쏴



정상에 오르면서 두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양 한수중학교 1학년 때 호기심에 사격을 시작한 그는 시작한 일에 끈기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장점이다. “연구하는 사격인이 되라”며 노력을 강조하는 노기중 주엽고 사격 감독에게 많은 힘을 얻는다는 이건국. 스스로도 동경하는 사격인으로 노기중 감독을 꼽았다. 그는 “사격선수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훌륭한 선수이자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심언규 기자 sims@khihoilbo.co.kr

역도 남일반 +105kg급 인상 11연패 AG 대표팀 탈락 이후 부활 다짐

“이번 전국체전은 개인적으로 역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많은 준비를 뒀는데도 이렇게 금메달을 목에 거니 송구스러우면서도 기쁩니다.”

‘인천 역도 간판’ 안용권(22·인천시청)이 29일 신성여중고 체육관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남일반 +105kg급 인상에서 178kg을 1차 시기에서 가볍게 들어 올리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용상에서는 217kg을 들어 메달을 따지 못했으나, 인상·용상 합계에서 395kg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안용권의 인상 금메달은 지난 2004년



충북 전국체전 때부터 시작된 후 11연패를 이어오고 있다.

인천아시아게임 대표팀에 빠지게 되면서 많이 힘들었던 그는 “인천아시아게임 선발전에서 탈락한 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며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하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신감’이 자신의 장단점이라고 말한 안용권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잘 보낸 만큼 남은 기간 준비를 잘해 올림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주도록 하겠다”며 응원을 부탁했다.

제주=최윤희 기자

수영 남일반 50m 접영 23초71 우승 자신의 한국신기록 0.06초 앞당겨

“인천아시아게임 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국 수영 단거리 간판인 양정두(23·인천시청)가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수영에서 귀중한 금메달을 따냈다.

양정두는 29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남일반 50m 접영 결승에서 23초71(한국신기록)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 기록은 자신이 세운 종전 한국신기록(23초77)을 0.06초 앞당겼다. 접영 50m에서 한국 선수로는 유일



하게 23초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양정두는 지난 인천아시아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양정두는 “초반 스타트가 좋았고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내가 가진 한국신기록을 다시 깨니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상일 인천시청 감독은 “양정두는 스타트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순발력이 뛰어나다”며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체력 저하 문제를 보완한다면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주=최윤희 기자 cyt@khihoilbo.co.kr

경기·인천 구기종목 ‘금빛 전선’으로 직진

경기선수단 열전 종합

핀수영 장형진 2관왕 등 활약 경북 제쳐 선두... 13연패 순항 배구 남녀 고등부 1회전 통과 고양시청 세팍타크로 결승행

체육공도 경기도가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13연패 달성을 향한 시동을 걸며 대회 2일째 금맥을 무더기로 캐냈다.

도는 44개 종목에 걸쳐 본격적인 순위경쟁에 돌입한 29일에만 27개의 금메달을 보태며 이날 현재까지 금 39개, 은 28개, 동메달 35개로 경북(금 24개, 은 11개, 동 20개)을 제치고 선두를 내달렸다.

도는 이날 핀수영 남자고등부 계영 800m에서 장창수·윤형민·박주영(이상 경기체고)·장형진(구리고)가 한 조를 이뤄 6분11초28로(종전 기록 6분14초96)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우승한 가운데 장형진은 표면 400m에서도 우승,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사격 남자고등부 공기소총과 공기소총 단체에서 우승한 이건국(주엽고)과 역도 94kg급 남자일반부의 정현섭(고양시청)은 용상과 합계에서, 여자일반부 53kg 합계와 인상에서 조유미(고양시청)가 우승해 각각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근대5종 여자고등부에서 김선우(경기체고)도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동시 우승하며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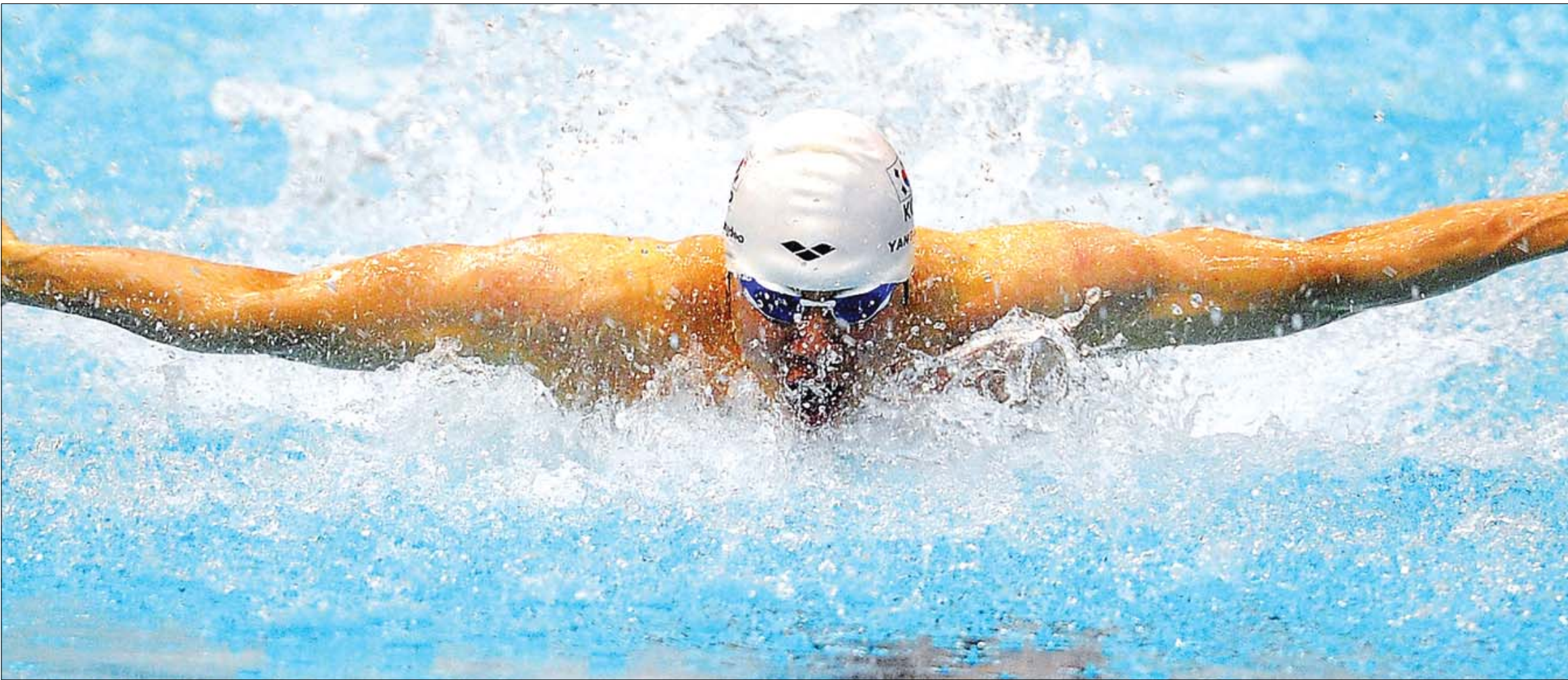
대회 첫날 레슬링에서 금 3개를 수확한 경기도레슬링협회는 이날도 남자고등부 자유형 85kg급 박재우(흥익디자인고)와 자유형 63kg급의 박수현(서현고)이 나란히 우승하며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유도 여자 인천아시아게임 우승자 정다운은 여자일반부 개인전 -63kg급에서 아시아 정상의 실력을 뽐내며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어 여자일반부 -48kg급과 개인전 무제한급, -57kg급에서 정보경, 이정은(이상 안산시청), 김잔디(양주시청) 등도 정상에 오르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구기종목의 선전도 대단했다. 배구 남녀 고등부의 송림고와 원곡고(여)는 창원남산고(경남)와 부개여고(인천)를 상대로 3-1, 3-0 승리, 남자대학부 성관대도 명지대(서울)를 3-0으로 누르고 각각 1회전을 통과했다. 럭비 부전북고는 상원고(대구)를 38-19로 이겨 8강에 안착했고, 하키 여자고등부 태장고는 국제통상고(대전)를 3-0으로 눌러 4강전에 진출했다. 세팍타크로 남자일반부 고양시청이 결승에 안착한 반면 남자고등부 풍무고는 준결승에서 부산체고에 패하면서 동메달을, 검도 고등부 퇴계원고 또한 준결승에서 진영체고(경남)에 져 동메달에 머물렀다. 제주=심언규 기자

.....▶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29일 열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여고부 -49kg급 16강 경기에서 경기도 김여정이 서울 서해진을 상대로 공격하고 있다. 제주=최민규 기자 cmg@khihoilbo.co.kr



제주시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29일 열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남자일반부 접영 50m 결승전에서 인천 양정두가 금빛 물살을 가르고 있다. 이날 양정두는 23초71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제주=최민규 기자 cmg@khihoilbo.co.kr

인천선수단 열전 종합 여자탁구 포스코에너지·여지축구 현대제철 동시 4강행

제주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7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이 연일 금빛 소식을 전하면서 순항하고 있다. 인천은 대회 이틀째인 29일 유도·태권도·양궁 등에서 선전을 펼치면서 금메달 11개를 추가하며 오후 7시 현재 금 17, 은 9, 동 25개 총득점 278점으로 10위를 달리고 있다.

이날 유도는 전날 선전을 그대로 이어갔다. 제주유도회관에서 계속된 유도 여고부 -63kg 결승에서 이소희(인천체고)가 부산 김재민(부산체고)을 한판, 여일반부 김지윤(인천동구청)이 경북의 이은주(포항시청)를 지도승 등으로 각각 이겨 금메달 2개를 추가했다.

한국 수영 단거리 간판인 양정두(인천시

청)는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남일반 50m 접영 결승에서 23초71의 기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전 한국신기록(23초77)을 0.06초 앞당기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인천 전국체전에서 양궁 5관왕의 주역인 이우석(인천체고)은 성산고 운동장에서 열린 양궁 남고부 70m와 90m에서 각각 348점, 348점 등을 쏘며 2관왕에 올라 다관왕의 시동을 걸었다.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태권도에서는 박효지(인천시청)가 여일반 -46kg 결승에서 충북의 김연지(정주시청)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7-2로 제압하고 가장 높은 시상대에

올랐다. 카누 남일반 K-1 1천m 박정훈(인천시청)과 레슬링 남고부 자유형 -50kg의 윤석기(인천체고) 등도 금메달 대열에 합류했다.

큰 점수가 걸려 있는 단체 및 구기종목에서도 인천의 선전이 이어졌다. 탁구 여자실업팀 포스코에너지가 여일반 단체전 준준결승에서 충북 단양군청을 상대로 게임스코어 3-0(3-2, 3-2, 3-1)로 제압하고 동메달을 확보했다. 올해 여자축구 최강자인 현대제철은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계속된 축구 여일반 준준결승에서 대전스포츠포토여자축구단을 상대로 전·후반을 1-1로 마치고, 승부차기 끝에 4-3으로 이겨 준결승에 진출했다.

제주=최윤희 기자 cyt@khihoilbo.co.kr

체전 이련일 저련일 보디빌딩 강경원 기분 업...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는 다운

강, 15번째 금메달 타고 신화창조

기록·경기 일정 올라간 홈페이지 갑자기 안 열려 미디어 혼선 빚어

○...인천 보디빌딩의 신화 강경원(41·인천시실업관공단)이 전국체전 15번째 금메달을 수확. 강경원은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제95회 전국체육대회’ 보디빌딩 남자일반부 90kg급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어, 강경

원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체전에서 85kg급 10연패, 90kg급으로 체급을 올려서 2연패하며 ‘기록의 사나이’로 불렸지만 2011년 은메달에 그치며 기록 행진을 멈춰, 이후 2012년엔 85kg급으로 내려 13번째 금메달을 따내며 부활한 뒤 지난 인천 전국체전에선 본래 자신의 체급인 90kg급에 출전, 1인자로 복귀하고 이번 대회에도 우승하며 건재함을 과시. 강경원은 지난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메달 15개를 따면 은퇴한다고 했는데 과연 은퇴할지 궁금.

○...제주 전국체전 중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다운. 제주도에서 한창 열리고 있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각종 기록을 알려주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가 갑자기 다운되면서 혼선을 빚기도. 29일 오후 각종별 기록을 알 수 있고, 경기 일정과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회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각 언론사 기자는 물론 시민들까지 답답함을 호소. 대회 관계자는 황급히 또 다른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 줬지만 이 역시 온전치 않아 큰 불편. 제주=최윤희 기자 cyt@khihoilbo.co.kr